

보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7

2021 July
Vol.542



9 772671 930009
ISSN 2671-9304

Contents

2021 July
Vol.542

달다가 시선이

떨치다 일상을

품다 세상을

오다 소식이



COVER STORY

헌법의 가치 아래 인권과 질서가 공존하는 교정을 표현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웹페이지를 통해 독자 의견 송부와 참여 코너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퇴임사	04
교정 ZOOM IN 부산구치소	06
생각의 방향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	12
지금, 이 사람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사는 남자, 배우 박재정	14
별별 알고리즘 기꺼이 짊어지는 무게 책임감	18



부캐를 부탁해 가족 반지 만들기 체험 청주교도소 교사 박재형	20
선배에게 듣다 부산구치소 교감 남경	24
교정인 원픽 수용자 인권에 진심인 부산구치소를 위한 응원팀	28
힐링 메신저 바다 향 머무는, 여름 산책의 도시 부산	32
지구 초대석 환경을 지키는 '냉장고 파먹기'	36
물음의 소통 집에서 그냥 쉬고 싶지만 여행 간다면 아무도 모르게	38



관계 반창고 스스로의 삶을 성장시키는 책임감	40
알쓸꿀잡 무더위 철벽 방어 여름철 피부 관리 편	42
머니 레시피 MZ세대가 주목하는 조각 투자	44
인문학 살롱 드라마의 복수는 드라마의 것이다	46
오늘의 건강 생명의 통로, '목' 건강 이야기	48



교정 이모저모 교정홍보대사 위촉식	50
대나무숲 일기 1 서울지방교정청 교위 김현근	52
교정 리포트	54
교정 News	58
모범 공무원 소개	65
독자 퀴즈 및 이벤트	66



월간 <교정> 웹진
<http://cowebzine.com>

발행일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1년 07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월간 교정 2021년 7월호 Vol.542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간 <교정>은 웹진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날을 돌이켜 봅니다!

제8대 교정본부장 이영희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정들었던 교정현장을 떠나고자 합니다.

1989년 6월, 설렘과 두려움으로 첫 부임지였던 광주교도소 외정문을 통과하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순간순간 힘든 적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32년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이 무렵 저는 대내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법치, 공정, 신뢰, 소통을 강조해 조직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교정본부장에 부임했습니다. 부임 후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실현을 목표로 국민이 신뢰하고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정착,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마련, 접견 제도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공로연수제도 개선, 인권 친화적 교정시설 표준 설계안 마련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의 숙원사항이었던 수용자 출정조사 방식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진행돼 왔던 사안인 만큼 후임 본부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지난해 12월, 우리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이라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매 순간 어렵고 힘든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개인보다는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 덕분에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임을 다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떠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이후 교정을 바라보는 국민과 언론의 부정적 시각을 차단하고 조직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용퇴의 길을 택했습니다.

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하고자 했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구성원 간 불신과 소통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복 공무원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그간 억눌려 왔던 자유로운 의견들이 분출되며,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직은 남다른 응집력과 개개인의 탁월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신임 본부장님이 공공안전 확립과 교정행정 인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수주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항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합니다. 막상 직분을 내려놓으려 하니 그동안의 성과보다는 아쉬움과 미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던 직원들에 대한 격려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현장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정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개개인의 고충에 귀 기울이지 못한 점은 없는지 지나는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받은 것은 넘치는데 드릴 것은 작은 마음뿐이라 미안합니다. 그렇더라도 꽤 멀리 왔기에, 또 오래 머물렀기에 만족하며 떠납니다. 해질녘 길을 걷다가, 한바탕 꿈에서 깨어나 또 여러분들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이제 가슴속에 '교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조력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진정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30.

제8대 교정본부장 이영희

인권의 가치와 공정한 법질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산구치소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며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민원인에게는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감염 등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시합니다.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부산구치소는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교정 인권 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수용자 인권 처우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용자 의료 처우 향상

부산구치소는 수용자 의료 처우 향상에 기여하고자 자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장 주관하에 매주 의료과 직원 집담회를 실시해 관련 업무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등 의료 처우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축적된 부산구치소 역사의 기록

부산구치소는 지나온 발자취를 기억하고 소중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100년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100년사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발전해 온 부산구치소의 시대별 변천사를 담아냅니다.



〈부산구치소 시대별 변천사〉

[화보] 사진으로 보는 부산구치소 史 35쪽

제1편 부산구치소 통사(通史) 10쪽

제2편 부산구치소 변천사

제1장 근대 행정의 시작 6쪽

1. 부산감리서와 이사청감독

가. 부산감리서 감독

나. 부산이사청 감독

2. 진주감독 부산분감 4쪽

제2장 일제강점기의 부산감옥과 부산형무소

3. 일제강점기의 부산감옥 8쪽

4. 일제강점기의 부산형무소 25쪽

제3장 해방 이후

5. 미군정기의 부산구치소 11쪽

6. 정부수립과 한국전쟁 13쪽

7. 한국전쟁 이후의 부산구치소 6쪽

제4장 교정의 틀을 위한 고민, 부산교도소 시대

8. 5.16 군사정변 이후의 부산교도소 14쪽

9. 부산교도소 구례동 이전 28쪽

제5장 인권과 질서의 조화, 부산구치소 시대

10. 부산구치소 명칭 변경 7쪽

11. 부산구치소 3부제 40쪽

12. 부산구치소 4부제 53쪽

제3편 특집자료 (100쪽↓)

1. 부산형무소 개항(1931년) 磯藤太郎

2. 부산형무소의 독립투사들

3. 사형장 이야기

제4편 특별부록 (60쪽↓)

역대 소장 명단

· 역대 과장 명단

· 역대 직원 명단 (퇴직직원포함)

· 역대 경비교도대 명단

· 역대 교정위원 명단

· 연대표

〈색인〉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

칼릴 지브란은 자신의 책 <예언자>에서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조언합니다.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싫은 마음으로 대충 하려거든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만일 무관심 속에서 빵을 굽는다면, 그대는 인간의 배고픔을 반밖에 채우지 못하는 맛없는 빵을 구울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대가 증오에 차서 포도 열매를 밟는다면, 그대의 증오가 그 포도주 속에서 독을 품을 것이기 때문에.”

빵 하나도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정성으로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은 빨리 적당히 해치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일을 사랑하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범선 작가의 수필 ‘도편수의 금지’에 나오는 도편수가 그렇습니다. 이 도편수는 한 시골집의 공사를 맡았었습니다. 집을 지은 지 8년쯤 되는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지나다가 자신이 지었던 집에 들릅니다. 주인과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도편수는 추에다 실을 매어서는 집 뒤편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한쪽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실을 높이 들고 서서 집의 기둥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기둥이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본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자, 그는 손으로 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그럼 그렇지. 끄떡 있을 리가 있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자신이 지었던 집을 잊지 않았던 도편수. 그는 시간을 내어 그 집을 찾아가 보고 어떤 문제라도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자기 일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감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누군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을 책임감 하나로 30년 넘게 해 온 남자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이 남자는 산골 오지 마을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길이 험해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 그래서 매일 아침 5시간을 걸어서 출근합니다. 한때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했지만,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예전처럼 걸어서 출퇴근을 합니다. 하루 일이 끝나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다시 5시간을 걸어서 퇴근해야 합니다. 출퇴근 하는 데만 무려 10시간이 걸리는 일, 힘들 때

도 있지만 자신만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하루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일하며 소중한 생명도 여러 번 구했기에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일에 소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책임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은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겨울, 한 여객기가 상공에서 새 떼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는 엔진이 멈춰 금방이라도 추락할 위기에 처합니다. 공항까지 날아가기에는 아슬아슬한 거리여서 기장은 강에 불시착하기로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 비행기는 강 위에 무사히 내려앉았고 승무원들은 발 빠르게 승객들을 탈출시킵니다. 모두가 빠져나간 비행기 안에서 기장은 혹시라도 남아 있는 승객이 있을까 객실을 살펴봅니다. 비행기 안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와 허리까지 차오르지만, 그는 기내를 두 번이나 살살이 살펴보고 나서야 가장 마지막에 비행기를 떠납니다. 육지에 도착해서도 기장은 구출된 사람들의 숫자부터 물어봅니다. “자넨 괜찮나?” 걱정하는 동료에게도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155명의 안전이 다 확인 되면 그때 대답하겠네.” 시장과 경찰청장이 보고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에 도 생존자 확인이 먼저라고 말하는 기장. 그는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위험한 상황,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재빠른 결단을 내리게 한 힘은 책임감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탑승한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출해야 한다는 것, 그들 모두를 무사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 이런 묵직한 책임감은 절체절명의 추락 사고에서도 탑승객 전원이 살아남은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지며 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서로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당신은 다른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덕분에,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덕분에’라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지고 있는 책임에 기대어 살아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사는 남자

배우 박재정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은 배우 박재정이 스튜디오로 들어섰다. 일일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교정본부와의 뜻깊은 인연으로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중형무진 활동하는 그에게 연기란 '하면 할수록 더 잘하고 싶은 것'이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잘 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배우 박재정을 만났다.

작품 위에 있는 배우는 없다

“매일 시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KBS1 일일드라마 <속아도 꿈결> 촬영으로 숨 가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배우 박재정이 인터뷰에서 들려준 첫 마디다. 평일 저녁마다 방영되는 하루 40분 분량의 웰메이드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청자를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 그는 현재 <속아도 꿈결>에서 출판사 대표이자 싱글 대디로 아이를 키우는 '최지완' 역을 맡고 있다.

“이제 <속아도 꿈결>이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주 200분 분량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배우뿐 아니라 모든 스태프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가장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NG 없이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담감을 이겨 내는 것도 배우의 역할이라 생각하며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홀로 반짝이는 듯 보이는 직업이다. 작품의 최전선에서 대중을 만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려면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이 모여야 한다. 박재정은 언제나 그런 가려진 노력을 기억하며 연기한다. 자기 자신이 아닌 작품 전체가 빛날 수 있도록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이 배우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물은 굉장한 공동체 작업이에요. 자기만 돋보이겠다는 욕심은 화면에서 금세 티가 나기 마련이죠.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연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촬영 현장을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작품 위에 있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재정



성실한 오늘을 쌓아 만드는 미래

박재정은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되기를 꿈꿨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싶었다.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대구에서 상경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며 연기 공부를 했고, 대학 시절 내내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며 소견을 넓혀 갔다. “영화는 저에게 철학적인 매체였어요.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이 특히 좋았죠. 제가 영화를 통해 좋은 메시지를 받은 만큼, 나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에 학교 영화 동아리부터 가입해서 활동을 시작할 정도로 폭 빠져 있었죠. 처음에는 연출에 흥미가 있었는데, 동아리에서 배우 역할을 하며 점점 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2006년 KBS2 <서바이벌 스타오디션>으로 처음 대중 앞에 선 박재정은 어느덧 데뷔 15년 차 배우가 됐다. 한 분야를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라면 으레 그렇듯 그 또한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더 잘할걸, 한 번만 더 해 볼걸’이라는 후회가 남는다고 말했다. 그래도 세월이 알려 준 것이 하나 있다. 한껏 힘을 주고 걷는 것보다 힘을 빼

는 게 더 중요하고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금보다 어릴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때도 힘이 들어갔죠.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힘을 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야든, 고수들은 힘들이지 않고 툭툭 하지만 큰 울림이 있잖아요. 촬영 현장은 늘 치열하고 긴장되지만 마음을 이완하고 힘을 빼려고 노력합니다. 긴장하는 것과 경직된 것은 다르니까요.”

자연스레 배우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도 달라졌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대단한 상을 받고, 천만 관객 영화를 찍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연기를 충실히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거창한 목표가 많았죠. 세계 무대에도 서고 싶었고, 남우주연상도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특정한 목표에 저를 가두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열심히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교정본부와의 끈끈한 인연

박재정은 교정본부와 두 가지 인연이 있다. 첫 번째 인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했다. 2001년 입대 후, 이듬해 교정시설경비교도대로 차출돼 서울구치소에서 2년여 간 교정공무원과 동고동락하며 수용자를 관리하고, 시설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힘써 온 것이다. “수용자 접견 시 대화 내용을 정리하거나 출정을 따라가고 보초를 서는 등 다양한 일을 도맡아 했어요. 서울구치소는 수천 명의 수용자가 지내는 하나의 사회거든요. 그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하며 경험할 수 있었죠”

서울구치소에서 지낸 2년여의 복무 기간은 배우라는 꿈이 영그는 시간이기도 했다.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여러 밤을 지새우곤 했던 그는 직접 영화 동아리를 만

들어 활동하며 군 복무 중에도 연기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다. “배우라는 꿈에 대해 자문자답을 많이 했어요.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동경하는 건 아닐까?’, ‘겉모습만 보고 배우를 꿈꾸는 건 아닐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만약 그렇다면 깨끗하게 꿈을 접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연기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장이 돼서는 당시 저희를 지도해 주신 신용해 대대장님(現 법무부 보안정책 단장)께 부탁드려 영화 동아리도 만들었죠.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 영화에 대해 토론하고, 크리스마스에는 작품을 연쇄해 무대에 올리기도 했어요.”

교정본부와의 두 번째 인연은 더욱 끈끈하다. 그의 친형(現 대구구치소 교감 박성우)이 현재 교정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복무하는 모습을 보고 형이 교정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저의 군 생활 추억이 깃든 곳이자, 형의 일터인 만큼 저에게는 교정본부가 특별한 수밖에 없죠”

인터뷰 말미, 박재정은 “형에게 이 인터뷰를 바친다”며 환하게 웃었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는 교정공무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인터뷰를 마쳤다. “촬영 현장 스태프의 노력이 대중에게 가려져 있듯, 교정공무원분들의 노고도 겉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정본부 가족으로서, 교정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부디 힘내시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짊어지는 무게

책임감



I Owe Your Responsibility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일들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서로를 믿으며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수많은 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은 더 살 만합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단 하나의 가족 반지

영롱하게 빛나다

청주교도소
교사 박재형 가족



청주교도소 박재형 교사 가족이 소박하고 진지한 일상으로 초대했다.

손끝의 온기를 더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반지를 만든 것.
함께라서 소중한 하나이기에 더욱 값진 작품을 완성한 시간.
어느새 반짝이는 가족 사랑이 영글었다.

오늘은 공예가, 부캐 도전!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느릿느릿 손길을 더해 만든 것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법이다. 박재형 교사가 아내 김서운 씨 그리고 딸 수연 양의 손을 꼭 잡고 금속공예 공방을 찾았다. 공예가로의 '부캐' 도전에 나선 것이다.

“저희 세 식구는 평소에도 특별한 활동을 함께하려고 해요. 주로 숲이나 산 등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캠핑을 즐기는데, 가족이 함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처음이에요. 색다른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었어요. 2년 전, 추석 무렵 큰 교통사고를 겪었거든요. 위기의 시기를 지나 오면서 가족의 힘과 소중함을 다시금 곱씹게 됐어요. 오늘의 체험이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 부부는 2010년에 결혼했다. 논산으로 홀로 여행을 떠난 박재형 교사는 그곳에서 아내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를 가만가만 되돌아보는 이들의 얼굴에 빙그레, 미소가 떠오른다. “당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터라 마음을 다잡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보고 한눈에 반했죠”라는 남편의 말에 아내가 화답한다. “연애하면서 제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달려와 준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던 시절을 지나 오붓한 ‘두 사람’에서 단란한 ‘세 식구’가 됐다. 어엿한 초등학생으로 자란 수연 양은 부부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이들이 도전할 금속공예는 은으로 가족 반지 만들기. 하나부터 열까지 수작업으로 진행되기에 정교한 손길과 정성을 쏟아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둘이서 정해 봐.” “심플한 게 좋겠지?” “반지 안쪽에 ‘MIRACLE’이라는 각인을 새겨 넣으면 어떨까?” 세 식구는 도란도란 반지 디자인과 각인 내용에 대해 상의한다. 디자인을 결정한 후, 각자 앞치마를 착용하고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정겨운 손맛이 녹아들다

은은한 조명 아래 자리를 잡으니 세 사람은 어쩐지 장인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다. 서로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히죽히죽 웃음이 새어 나온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다양한 공구를 보자 기대감과 설렘이 배가된다. 실제 작업에 앞서 연습부터 시작한다. 동판에 위아래 일정하게 간격을 맞춘 후 문구를 새기는 작업이다. 수연 양이 망치로 탕탕, 두드리자 이니셜이 새겨진다. “평소 만들기를 좋아해서 그런지 재미있어요.” 이에 엄마는 “오늘 수연이가 감이 좋은 것 같아”라는 따뜻한 한마디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뒤이어 아빠와 엄마의 손길이 더해지자 각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졌다.



※ 7월호 '부캐를 부탁해'의 가족 반지 만들기 체험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이뤄졌으며, 금속공예 공방 '다운메이드'를 단독으로 예약해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가족 사랑이 담백 담긴 보물

여기서 끝이 아니다. 투박했던 반지를 매끈하게 다듬는 단계가 이어진다. 핸드피스를 사용해 반지를 지그시 눌러 울퉁불퉁한 부분을 다듬어 준다. 그리고 사포질로 광택까지 내어 주자 반짝반짝, 은이 말간 속살을 드러낸다. “와, 점점 빛나고 있어!” 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크게 그려진다. 다정한 가족애가 뚜렷이 감지되는 순간이다.

드디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 반지가 완성됐다. 애정 가득한 눈빛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걸 보니 꽤 맘에 드는 눈치다. 이리저리 돌려서 살펴보고, 서로의 손에 끼워 준다. 똑같은 반지를 착용한 세 사람. 박재형 교사가 아내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더욱 깊어진다.

“요즘에는 사소한 일상 하나하나가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과거 많이 바쁘던 시절에는 퇴근 후 집에 와서 아이와 놀아 주지도 못하고 휴식만 취했거든요. 요즘에는 세 식구가 둘러앉아 식사하고 하루의 일과를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워요.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많이 느끼고요.”

세 식구는 축축한 감성을 충전한 시간이 만족스럽다.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미래를 꿈꿔 본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을 가족과 함께해서 더욱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매 순간이 기적인 것을 새삼 느꼈어요. 앞으로도 세 식구가 물 흐르듯 평온하면서 잔잔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수연이가 자유롭게 꿈을 꾸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달리 보물인가. 바라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곁에서 자신을 환히 빛내 주는 존재야말로 ‘진짜’ 보물이 아닐까. 일상의 매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이 되어 주는 세 사람. 정겨운 손맛으로 사랑을 돈독히 다진 오늘의 추억이 가족의 미래를 더욱 찬란하고, 오랫동안 빛내 줄 테다.

‘부캐를 부탁해’ 코너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부캐를 부탁해’는 또 다른 삶인 부캐릭터(부캐) 트렌드에 발맞춰 꿈꿔 온 자신의 부캐를 만들어 보고 체험하는 코너입니다. 평소 하고 싶었던 활동,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 보며 지친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부캐를 부탁해’ 코너에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섬세한 작업인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것처럼 온전히 집중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 그런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엄마 김서윤 씨에게 수공예가 꽤 흥미롭게 다가온다. 연습으로 감각을 익힌 세 사람은 은판에 각인을 새기기 시작한다. 엄마는 아빠의 반지에, 아빠는 딸의 반지에, 딸은 엄마의 반지에 각인을 새기며 오순도순 손맛을 발휘하는 시간, 분위기는 더욱 정겹게 달아오른다. “오, 완벽해!” 이제 은판을 등글게 말아서 이음새 부분에 은으로 뿔하는 작업까지 마치자 반지 모양이 완성됐다.

Metal craft



행동하는 책임감을 위해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남경(부산구치소 보안과 교감)

“내 몸이 조금 더 고되면 내 동료는 그만큼 편해집니다.” 부산구치소 남경 교감이 어떤 교정공무원인지 설명하거나 그가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극도로 피곤이 몰려올 때와 긴장이 풀리는 순간을 특히 경계할 것. 제복을 입을 때마다 그가 장착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교정공무원의 책임감 있는 자세다.



“수용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할 대상이 아니라 교정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게 됐죠.”

Q. 자기소개부터 해 주세요.

부산구치소에서 보안과 당직교감을 맡고 있습니다. 부산구치소는 2004년 교정공무원으로서 첫 근무지였는데, 창원교도소를 거쳐 지난해 7월 다시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직교감은 주간에는 보안과장을 보좌해 수용관리 및 기타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휴일이나 야간에는 기관장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책임감이 좀 더 막중해집니다. 특히 구치소는 형 확정 전의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시설로, 출정과 접견 횟수가 많아 교도소보다 훨씬 동적인데요. 출정의 경우 많은 날은 하루에만 200명 넘게 외부에서 이동하다 보니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죠. 또 코로나19 이후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평일 기준 10명 이상씩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데, 이들의 건강 상태와 성향, 입소에 따른 감정 변화, 코로나 관련 특이 사항 등을 면밀하게 체크해 미리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Q. 교정공무원을 선택한 계기가 있었나요? 아울러 처음 교정공무원으로서 품었던 마음과 17년이 흐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교사였던 부친을 비롯해 집안에 유독 공직에 몸담은 이들이 많다 보니 공무원이 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중에서도 교정공무원을 선택한 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직업군이라는 점에서 호기심도 있었지만, 다양한 계층이 모여 있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도 같은 곳에서 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다만 갓 발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수용자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그들을 바라봤죠. 그런데 막상 수용자들을 가까이에서 대하고 관리하면서 보니 어린 시절의 환경과 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그런 수용자들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용 관리가 수월해지고 교정교화가 잘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용자는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할 대상이 아니라 교정교화를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바라보게 됐죠.

Q. 수용자에 대한 시각과 관점을 바꾸는데 영향을 준, 기억에 남는 수용자가 있나요?



교정공무원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정시설 안에서도 별도로 격리된 수용동에 고정 배치된 적이 있었어요. 일반 수용동에서 관리가 어려운 수용자 1명을 집중 관리했는데 상습 자해, 이물질 취식, 정신 질환 등이 복합된 소위 말하는 ‘문제수’였죠.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작은 소리에 깰 만큼 예민해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수용자였는데, 한번은 수용자 거실 바로 앞에 의자를 갖다 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갑이어서 그랬는지 어릴 때 이야기와 살아온 과정을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하더니 이후에는 제가 근무할 때면 예민하게 행동하는 대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수용자 심경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어요.



Q. 교감님만의 업무 필살기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업무 교육 시 가장 중요하게 꼽는 원칙은 수용자를 관리하거나 행정 사무를 할 때 항상 법에 근거해 업무를 진행하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당성이 보장되고, 당당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루에도 수많은 공문을 접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거나 이전 내용과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메모를 추가하는 등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의 빈틈과 누락을 방지할 수 있죠.

Q. 후배들이 책임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다면?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긴급하게 결정해야 할 순간이 많습니다. 책임질 자리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할 텐데, 그때마다 신속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야간에 실시하는 긴급 교정사고 대비 훈련을 실제처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으로 일하기 위해서죠. 아울러 ‘내 몸이 조금 더 고되면 내 동료도 그만큼 편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온종일 수용 관리를 하다 퇴근 무렵이 되면 극도의 피로가 몰려와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교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긴장감이 풀리기 마련인데요. 운동 경기에서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에 골이 들어가듯 대개 크고 작은 사고는 그 순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며 자연스럽게 민감해진 자신만의 ‘촉’이 보내오는 신호에도 귀 기울이세요. 기우에 그칠 때가 많지만, 유독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신경 쓰이는 수용자가 있다면 한 번 더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면담을 한다면 혹시나 모를 사고를 막고 분명 좀 더 책임감 있는 교정공무원으로 한 단계 성장할 거라 확신합니다.

“ ‘내 몸이 조금 더 고되면 내 동료도 그만큼 편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



Q.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교정공무원은 보람도 크지만 그만큼 몸과 마음의 피로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에너지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외적인 시간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해 왔고, 한때 오페라 사이트를 운영할 만큼 애정이 깊습니다. 요즘도 가지고 있는 3,000장 정도의 음반을 틀나는 대로 매우 심취해 듣는데요. 체력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돼 동료 선후배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Q. 끝으로, 후배들에게 어떤 선배가 되고 싶나요?

교정공무원으로서 롤모델이 된 선배님이 먼저 떠오릅니다. 부산교도소 소장을 끝으로 퇴임하신 성맹환 소장님이신데요. 출정과에서 한 번, 이후 보안과에서 또 한 번 상사로 모실 기회가 있었는데, 평소엔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해 주시되 업무 관련해서 만큼은 매우 철저한 스타일이셨어요. 어느새 교정공무원으로서 반환점을 돌아 선배의 위치에 서게 됐는데요. 저도 그 선배님처럼 후배들과 격 없이 어울리되 업무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용자 인권에 진심인 부산구치소를 위한 응원템



줄기를 땅 위로 높이 자라게 하려면 그만큼 땅속뿌리가 깊어져야 하는 것처럼, 수용자 인권 신장은 교정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해진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로부터 교정 인권 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산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 월간 <교정>이 진심 가득한 응원의 선물을 건넨 이유다.

사회와 수용자들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는 사람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교정시설에 있을 때 우리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격리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회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를 수용자 인권의 기본으로 삼은 부산구치소는 사회와 수용자들 사이에서 그 둘의 간격을 좁히는 교정교화에 힘쓰고 있다. 수용자 인권 신장은 교정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겠으나, 지난해 5월 이후 부산구치소 교정공무원들에게는 좀 더 목직하고 과제로 다가왔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수용자 인권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졌고, 이는 새로운 종합 대책 수립과 실행으로 이어졌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늦은 오후나 야간 시간대에 입소하는 신입 수용자의 경우 심리적 충격으로 자해, 자살 충동 등에 좀 더 노출돼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심리치료실 직원들이 순번을 정한 후 교대로 매일 밤 9시까지 심리 상담을 진행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 또 무적 수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교정교화에 가장 든든한 지지자인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원할 경우 무료 심리 상담과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수용 거실 내 응급벨 옆에 '수용자 생명 존중 캠페인' 포스터와 표어를 부착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옆 사람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치소로는 이례적으로 수용동에 2,000여 권의 도서 문고를 설치했고, 인성교육실과 심리치료실에 수용자들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잠시나마

여유와 긍정적인 정서를 갖도록 원두커피 머신을 비치해 줬다.

지난해 하반기 법무부가 교정 인권 보호 상황 평가에서 인권 보호 최우수기관으로 부산구치소를 선정한 것은 이처럼 수용자 인권 신장을 위한 다각적이고도 섬세한 정책을 펼친 결과일 터. 월간 <교정>은 수용자 인권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부산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수용자 인권이 향상된 만큼 교정공무원이 체감하는 보람 또한 커지길 바라는 마음을 선물 하나하나에 정성껏 담았다.

교정시설 유일의 커피 맛집 예약

'원두커피 머신'

악마처럼 검고 지옥처럼 뜨겁지만 천사처럼 순수하고 키스처럼 달콤하며 눈보다는 코에 한없이 친절한 액체. 모든 마실 거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애호가를 거느린 커피는 그 자체의 매력에 사회적 기능까지 덩으로 수행한다. '커피 한잔하자'는 말에는 '이야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고, 커피 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를 해제하고 관계의 밀도를 높여 준다.

자타 공인 커피 예찬론자인 김영식 소장이 부임하자마자 원두커피 머신을 보급한 것도 직원들이 이 같은 커피의 순기능을 가까이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다만 500여 명에 이르는 부산구치소 교정공무원을 감당하기에는 원두커피 머신이 다소 부족했던 게 사실. 이에 월간 <교정>이 선물한 3대의 원두커피 머신이 앞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부산구치소 교정공무원의 커피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을 키우는 매개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까지 엿었다.

평소 드립커피를 즐기며 직접 제조한 드립백을 주변에 선물해 커피 전도사로 통한다는 출정과 신동수 교위는 “앞으로는 근무 중에도 즉석에서 그라인딩한 신선한 원두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생각만으로도 기쁘다”며 원두커피 머신을 반겼다. “바쁠 때는 단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원두커피 머신이 있는 곳까지 다녀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까운 데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홍무과 이창현 교위는 “한 번에 10잔까지 내릴 수 있다니, 동료들과 커피 타임을 갖기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용기록과 박수현 교사도 “이전에는 집에서 내린 커피를 텀블러에 담아 왔는데 소장님 덕분에 작년부터는 마시고 싶을 때 바로바로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커피가 주는 행복과 여유가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속 가능한 위로와 에너지를 위해
‘텀블러’**

업무에 쫓기다 보면 내가 원하는 온도의 음료 한 잔조차 여유롭게 마시기가 쉽지 않다. 의료과 전병우 교도는 업무 특성상 환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잦다 보니 잠시 물을 담으러 다녀올 짬조차 내기 어렵다고. “겨우 담아 와도 몇 명의 환자를 연이어 보다 보면 한 시간은 금세 흐르고, 종이컵에 담긴 물이나 음료는 이미 내가 원하는 온도가 아닐 때가 많다”는 그는 월간 <교정>이 건넨 보은·보냉 텀블러 덕분에 자신이 원하는 온도에 맞춰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업무인 데다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바람에 더 크게 말해야 하는 고충을 털어 놓은 민원과 김종원 교사는 “목을 많이 쓰니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텀블러 덕분에 따뜻한 물을 두고두고 마실 수 있어 목 관리가 좀 더 수월

해졌다”며 민원과 동료들에게도 텀블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전했다. 업무상 운전할 일이 많은 복지와 노형근 운전서기보는 “건조한 차 안에서 운전하는 시간마저 길어지면 음료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앞으로 텀블러를 휴대하면 수분과 함께 에너지도 그때그때 충전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안과 김용표 교위는 “주로 일회용 종이컵을 쓰다 보니 근무를 마칠 때쯤 되면 제법 많이 쌓여 있다”며 “앞으로는 텀블러를 애용해 개인위생과 방역은 물론 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겨지고 헝클어진 기분까지 짝-
‘스팀다리미 & 헤어드라이어’**

때론 부분이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살짝 구겨진 셔츠 깃이나 제멋대로 뻗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그날의 기분을 결정짓고,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하는 법. 분류심사와 장민제 교사에

게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제복을 세탁소에 맡기는데, 어쩌다 사정이 생겨 집에서 세탁하면 다림질 미숙으로 근무 중에 꼭 구겨진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는 장민제 교사. 그럴 때마다 기분까지 구겨지면서 자꾸만 그쪽으로 신경이 쏠렸다는 그는 핸디형 스팀다리미 덕분에 이제부터 제복은 물론 마음의 구김살까지 짝 펴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사회복귀과 정석윤 교사가 새 헤어드라이어를 고대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탈의실에 몇 대의 헤어드라이어가 구비돼 있지만 오래사용해 성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무엇보다 바쁜 시간대에 여러 명이 줄 서서 기다리다 보니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웠다”는 그는 월간 <교정>이 선물한 최신 성능의 헤어드라이어 덕분에 좀 더 신속하고 단정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활짝 웃었다.

바다 향 머무는, 여름 산책의 도시



부산은 여름에 산책하기 좋은 도시다. 오래된 골목과 바닷가에는 영화 촬영지의 향수가 더해지고, 도시에는 청춘들의 열정이 가득하다. 도심 빌딩과 어우러진 해변은 휴가철이면 활기가 넘친다. 그리고 부산의 서쪽, 낙동강 하류와 맞닿은 송학산 아래 부산구치소가 들어서 있다.

‘한국의 마추픽추’ 감천문화마을

부산의 서쪽에 위치한 부산구치소가 사하구 송학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것은 1973년의 일이다. 1986년에는 부산고도소에서 부산구치소로 변경돼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부산 동쪽이 광안리, 해운대로 들쭉한다면 서쪽은 호젓하고 친밀한 공간이 주를 이룬다. 최근 사하구의 명소로 사랑받는 곳은 감천문화마을이다. 산기슭을 가로지르는 산복도로와 달동네마을은 부산의 세월과 명맥을 같이한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피란민들과 근대화의 길목에 선 서민들은 산기슭 계단식 집에 어깨를 맞대고 살았다. 그 산동네 중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의 마추픽추’로 불리는, 굵게 단장된 파스텔 톤의 동네다.

지역 예술가들과 마을 주민들이 뜻을 모아 ‘마을미술 프로젝트’로 구현한 감천문화마을은 아기자기한 갤러리, 카페, 벽화 등이 들어선 색다른 공간으로 변신했다. 미로 골목을 거닐다 보면 어린왕자 조각상, 등대 포토존 등이 반기며 마을에서 공방, 숙박 체험도 가능하다.



요트와 어우러진 이국적인 해운대

부산 여름 여행 1번지는 해운대다. 해운대 주변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솟았고, 아기자기한 조각상이 해변을 단장한다. 1층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시며 파도와 마주하는 일은 해운대의 흔한 풍경이 됐다. 나무 데크를 따라 동백섬 주변을 산책하는 일, 영화의 배경으로 익숙해진 해변 길에 몸을 기대는 일 등이 해운대에서는 일상처럼 다가온다. 해운대 옆, 요트가 어우러진 ‘더베이 101’은 동남아의 여느 항구도시 못지않은 깊은 야경을 뿜어낸다. 해운대 달맞이 고개에는 고급스러운 카페와 운치 있는 갤러리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들어서 있다.

해운대 바다는 해안도로를 따라 파도처럼 이어진다. 해운대~송정~기장을 잇는 길은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힌다.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를 거쳐 송정까지 해변열차도 오간다. 송정해변은 저녁이면 이국적인 카페들이 붉을 밝히며 그윽한 산책을 부추긴다. 부산의 바다는 북쪽 일광, 칠암해변 등 한적한 어촌으로 연결되며 오붓함을 더한다.

부
산

"오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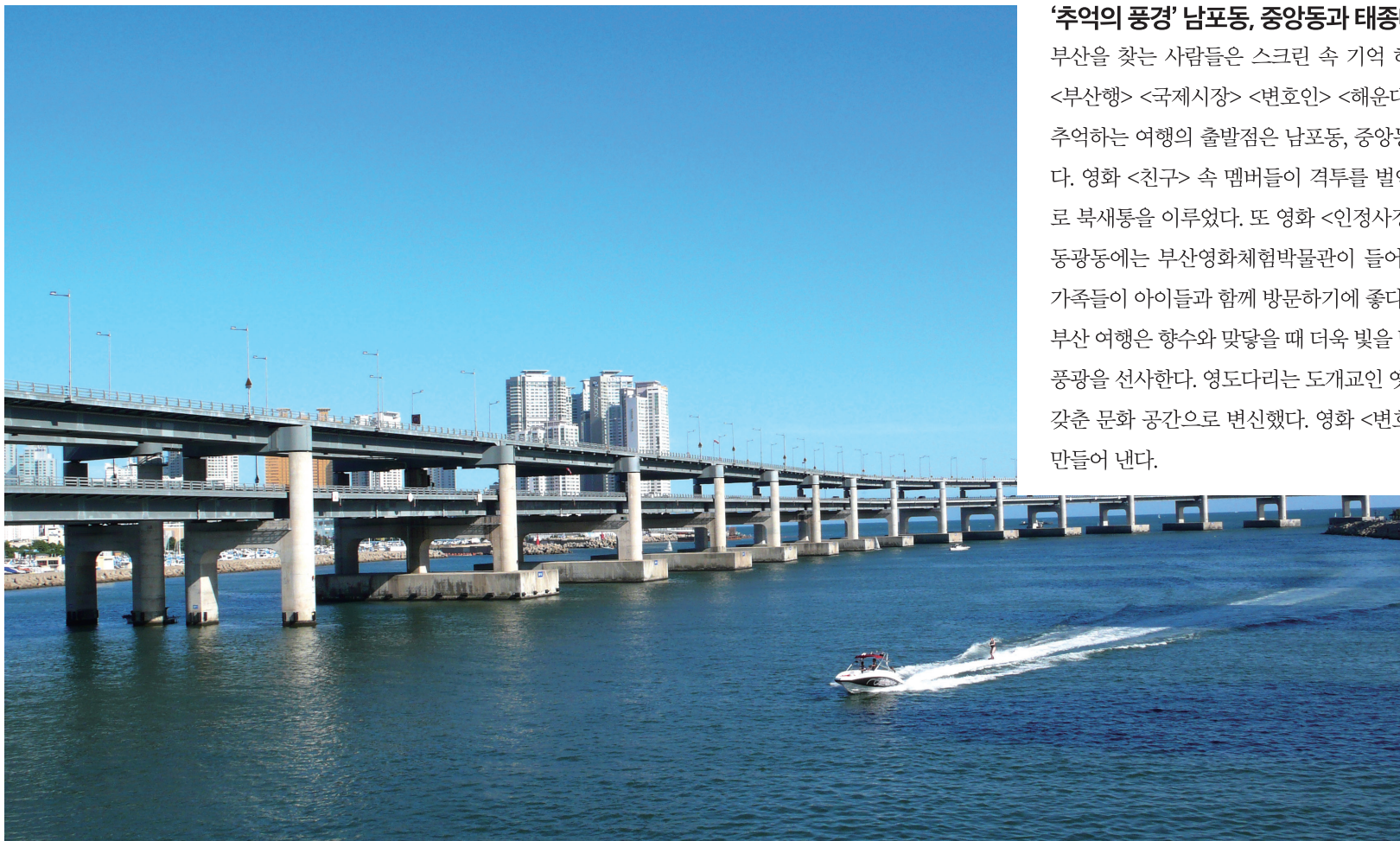
"보이소"

청춘 문화의 중심, 광안리&센텀시티

바다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식도락을 즐기는 것은 이제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로 정착했다. 광안리에는 대형 회센터가 들어서 있으며, 해 질 무렵 방파제에 앉아 회 한 점 즐기는 것도 꽤 운치 있다. 광안리 일대는 부산구치소의 젊은 직원들이 즐겨 찾는 단골 장소 중 한 곳이다.

광안리 해변은 해변도로를 따라 카페, 상점이 이어지고 주말 밤이면 야시장이 들쭉거린다. 수영구 일대의 밀면, 빵집 투어도 식도락을 즐겁게 한다. 광안리 수변공원에서 BEXCO를 잇는 산책로 주변에서는 버스킹하는 아마추어 아티스트들과 낚싯대를 기울이는 낚시꾼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부산 문화의 중심지는 센텀시티, BEXCO 쪽으로 이동 중이다. 광안리에서 다리를 건너면 백화점, 쇼핑몰이 밀집한 센텀시티로 연결된다. 부산 영화의 랜드마크도 남포동에서 센텀시티로 바뀌었다. BIFF 영화의 전당을 만날 수 있으며, BEXCO 광장에서는 여름이면 다채로운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추억의 풍경' 남포동, 중앙동과 태종대

부산을 찾는 사람들은 스크린 속 기억 하나로 골목을 배회한다. 부산을 배경으로 찍은 영화는 100편을 넘어선다. <부산행> <국제시장> <변호인> <해운대> <친구> 등의 영화에서 본 화려한 장면이 부산에 녹아들어 있다. 영화를 추억하는 여행의 출발점은 남포동, 중앙동 일대다. 1937년 문을 연 부산극장은 붉고 선명한 간판으로 이방인을 반긴다. 영화 <친구> 속 멤버들이 격투를 벌인 중앙동의 영화관은 고전이 됐고, 국제시장은 동명의 영화 이후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또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인상적인 계단 신은 중구 동광동 40계단이 주요 무대였다. 동광동에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들어서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 준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부산구치소 직원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

부산 여행은 향수와 맞닿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 영도 최남단에 들어선 태종대는 파도와 바위 절벽이 빚어내는 아득한 풍광을 선사한다. 영도다리는 도개교인 옛 모습을 되찾았고, 1906년 처음 불을 밝힌 영도 등대는 도서관, 갤러리 등을 갖춘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다. 영화 <변호인>의 배경인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을 서성이는 것도 여름 산책의 여운을 만들어 낸다.

동래파전, 완당, 밀면 등 부산의 맛

"드이소"

부산은 불거리만큼이나 먹거리도 가득하다. 맛집 순례만 나서도 부산의 하루는 짧다. 동래온천 인근은 부산 원조 먹거리의 천국이다. 동래시장 앞에 위치한 '동래할매파전'은 4대를 이어 오며 맛을 유지하고 있다. 원조 동래파전은 오징어 대신 대합, 홍합, 굴, 새우 등이 들어가며, 간장이 아닌 초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다. 온천장 옆길에는 30여 년 전통을 이어 오며 산 공장이며 쓰는 공장이 거리가 들어서 있다. 손맛 가득한 팔빙수와 단팔죽을 먹고 싶다면 남포동을 지나 신창동 팔빙수 골목을 찾는다. 단팔죽과 팔빙수만 30년 넘게 팔아온 이곳 골목에서는 직접 손으로 반죽한 단팔죽과 팔빙수를 내놓는다. 이곳 단팔죽, 팔빙수 거리는 외국인들도 소문을 듣고 찾는 명소가 됐다.



부용동 동아대 캠퍼스 앞에는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만둣국집인 '18번 완당'이 있다. 1947년에 가게를 열어 3대째 운영하고 있는데 종이 위에 올려놓으면 글씨가 보일 정도로 얇은 만두피가 특징이다. 완당은 멸치와 고기육수로 맛을 낸 국물과 담백한 조화를 이룬다. 북한의 냉면이 부산으로 내려와 새롭게 탄생한 음식인 밀면도 별미다. 원조 격인 연산동 '가야밀면'과 광안리의 '본가제일면'가 유명하다. 졸깃하면서도 고소한 면발에 곁들여지는 육수가 일품이다.

지구를 구하는 방법은 냉장고 속에 있다 환경을 지키는 ‘냉장고 파먹기’

자취생이나 1인 가구에서 시작한 ‘냉장고 파먹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등 범사회적인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냉장고 속 재료를 활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자 했던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환경보호라는 큰 의미를 담게 된 것이다.



인류의 필수품 냉장고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냉장고 파먹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냉장고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인 냉장고가 발명된 후 우리 삶은 크게 달라졌다. 식자재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부패한 음식을 섭취할 일이 적어졌으며, 식중독의 위험도 냉장고가 없던 시절과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식자재를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 썩어서 버려지는 양이 줄었고, 식량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도 줄어들었다. 또한 상온에서는 금방 신선도를 잃는 채소나 금방 상하는 우유·육류 등을 언제나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섭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냉장고에도 이면은 존재한다. 식자재의 장기간 보관은 인간의 과소비를 부른다. ‘1+1’이나 대량으로 판매하는 식자재를 냉장고에 가득 채워 뒀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 썩어서 버린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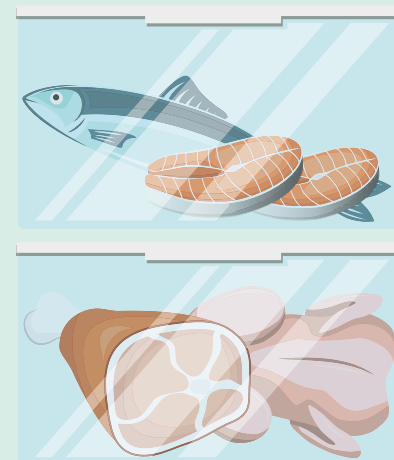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평균 55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 이를 처리하는 데만 약 8,000억 원이 든다. 눈여겨볼 점은 음식물 쓰레기 중 먹고 남아서 버린 음식물은 전체의 30% 정도로 그 비율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유통·조리 과정에서 버려지는 식자재가 57%로 가장 많으며, 보관만 하다가 결국 폐기되거나(9%), 한 입도 먹지 않은 상태(4%)로 버려지는 양이 상당하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거나 먹지 않고 버리는 것도 큰 문제지만, 냉장고 속 식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잠자고 있는 식자재를 깨워라 ‘냉장고 파먹기’

몇 년 전부터 냉장고 안에만 있다가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 ‘냉장고 파먹기’가 확산하고 있다. 냉장고 속에서 잠든 식재료를 썩혀 버리지 말고, 재료 준비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해 불필요한 식자재 구매를 줄이자는 취지다. 모두가 냉장고 파먹기를 실천해 전체 음식물 쓰레기를 약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자취생이나 1인 가구 사이에서 식비 절감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목적으로 실천했던 냉장고 파먹기가 결과적으로 인류 전체의 경제적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냉장고 파먹기의 효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늘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냉장고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로 유명하다. 특히 내부에 음식물이 가득하거나 자주 냉장고를 여닫으면, 냉장 효율이 떨어져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 반면 냉장고를 비우는 것만으로도 냉기 순환이 수월해져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 이 외에도 냉장고 파먹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지구에 미치는 환경문제,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인구가 많지만 한편에서는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관점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교정공무원이 국민 곁에 있음을 알리는 지름길은 ‘환경 개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냉장고 파먹기’에 동참해 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세요. 선정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콘(5,000원 상당)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는 곳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식자재 낭비 줄여 비용 절약하고, 지구도 지키자!

제로웨이스트 레시피 이용하기

제로웨이스트 레시피는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자는 취지로 유럽에서 유행한 방법이다. 카페라테를 만들고 남은 우유 거품으로 리코타 치즈를 만들거나 커피 찌꺼기를 접시 재료로 활용하는 등 많은 시도가 있었다. 최근에는 서점이나 온라인에서도 제로웨이스트 레시피를 찾아볼 수 있다.

계획적으로 식자재 구입하기

처음부터 냉장고를 덜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자재 구매 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중대형 슈퍼나 마트에 소량 포장한 제품도 많고, 재래시장에서는 원하는 만큼만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식단에 맞춰 정량만 구매하고 되도록 날개 포장된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남은 재료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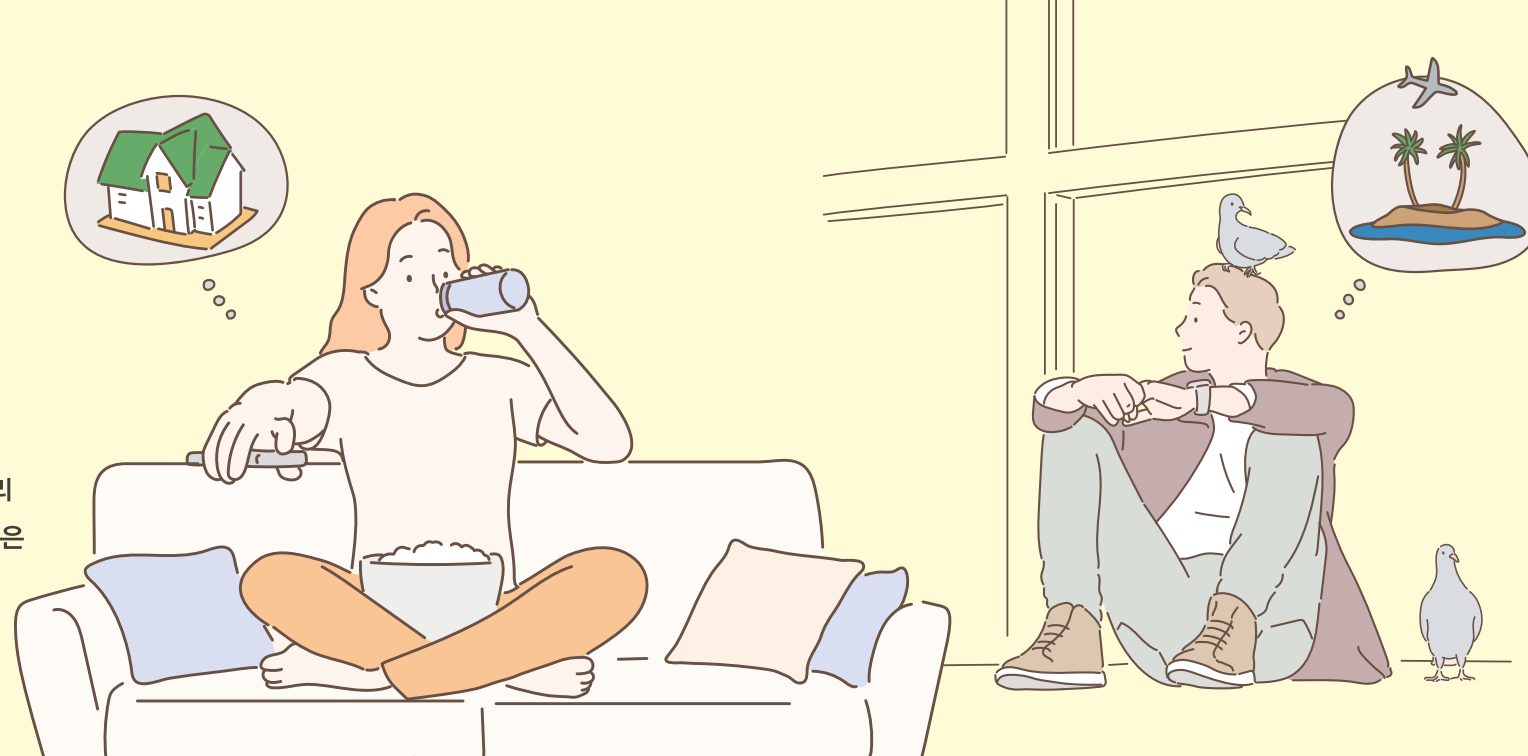
장을 본 다음 양이 많은 재료는 1회분씩 나눠 잘 보이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요리가 끝나고 남은 자투리 재료도 이후 다른 요리에 활용하기 편하도록 손질해 둔다. 채소와 고기가 남았다면 재료를 다진 후 몽쳐서 완자를 만들어 먹거나, 반죽해 놓은 것을 팬에 부쳐 냉동실에 넣어 두고 필요할 때 데워 먹을 수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잘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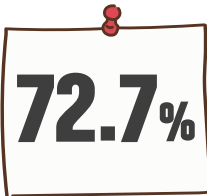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므로 날짜가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식품이 상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기한’이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직후부터 달걀은 25일, 우유는 50일까지 소비가 가능하다. 유통·보관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잘 확인하여 먹는 것이 좋다.

집에서 그냥 쉬고 싶지만 여행 간다면 아무도 모르게

지난해 여름휴가는 일명 '집콕'과 '호캉스'가 대세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자 휴가를 내고도 집에서 쉬는 직장인이 크게 늘어난 것. 그러나 올여름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직장인이 안전 수칙을 지키며 국내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 계획을 알아보고 안전한 휴가 계획 Tip을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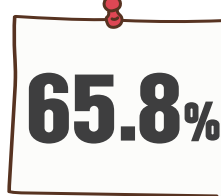


코로나 시대 연차·휴가 내고도 "그냥 '집콕' 했어요"



코로나19로 국내외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바쁜 직무 스케줄 속 모처럼 연차나 휴가를 내더라도 집에서 쉬기 일쑤였다. 온라인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가 직장인 72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내 '집콕' 휴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자 69.9%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적이 있다는 얘기다.

"방역 수칙 지키면서 국내 여행이라도 가자"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에 대한 갈증이 늘고 백신 접종률도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한 직장인의 인식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742명을 대상으로 올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려 응답자 3명 중 2명(65.8%)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국내 여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캉스(호텔+바캉스)'를 계획한다는 의견도 34.2%로 나타났다. 이어 집에서 휴식하겠다(집콕)(28.3%), 자기 계발(5.6%), 육아(4.3%), 고향 방문(3.3%) 등 다양한 휴가 계획이 나타났다.

나의 휴가 계획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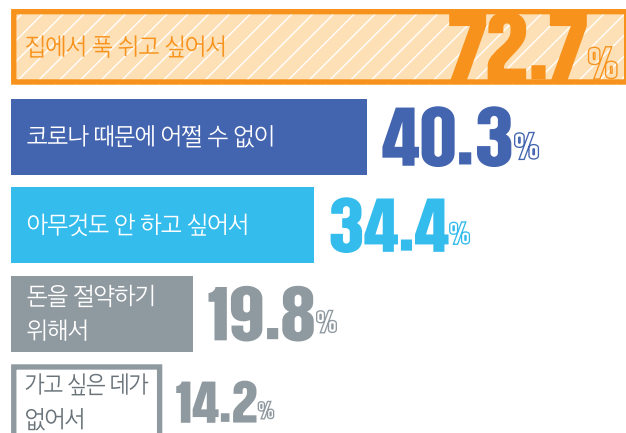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행을 준비하는 직장인 가운데 87.2%는 여행을 가되 회사 동료 등 타인에게는 비밀로 다녀올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듯 휴가 계획을 선뜻 이야기하기 꺼려지는 요즘이다. 연이은 코로나19 확진 수 증가 발생으로 비상이 잦았던 교정공무원들 역시 비슷한 마음일 것이다. 무엇보다 수용자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교정공무원들에게 휴가와 재충전은 필수다. 지인에게 휴가 계획을 공유하든 그렇지 않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이다. 교정공무원 여러분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만끽한 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대해 본다.

교정공무원을 위한 여름휴가 Check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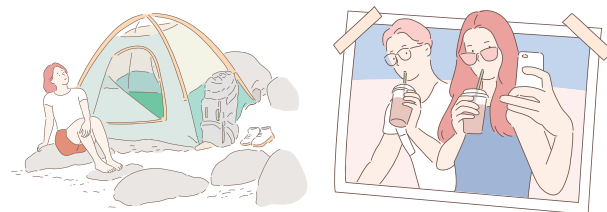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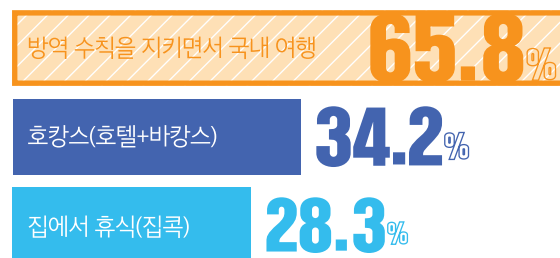
집단감염 위험이 큰 교정시설의 직무 환경 속 교정공무원은 여름휴가 동안 방역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올여름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휴가철 방역 수칙을 잘 기억해 두자. 가족, 동행자와 함께 철저하게 숙지하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다.

- 1 안전 우선**
 여름휴가 계획 세우기
 - 가족 단위, 소규모로 나눠서 가요
 - 성수기(7월 말~8월 초)를 피해 일정을 세워요
 - 이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해요
- 2 휴가지에서 실천해야 할 세 가지 규칙**
 '3행(行)'
 -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요
 - 휴게소·음식점에는 최소한 짧게 머물러요
 - 사람 간 거리 2m(최소 1m)를 유지해요
- 3 휴가지에서 피해야 할 세 가지 수칙**
 '3금(禁)'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가지 않아요
 - 유흥 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를 피해요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은 반드시 피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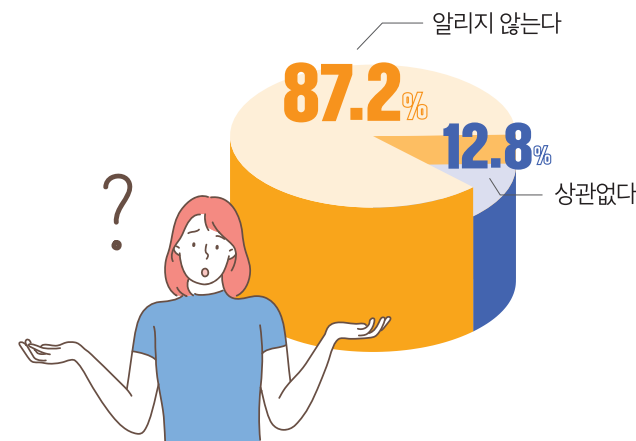
휴가를 쓰고도 '집콕' 하는 이유(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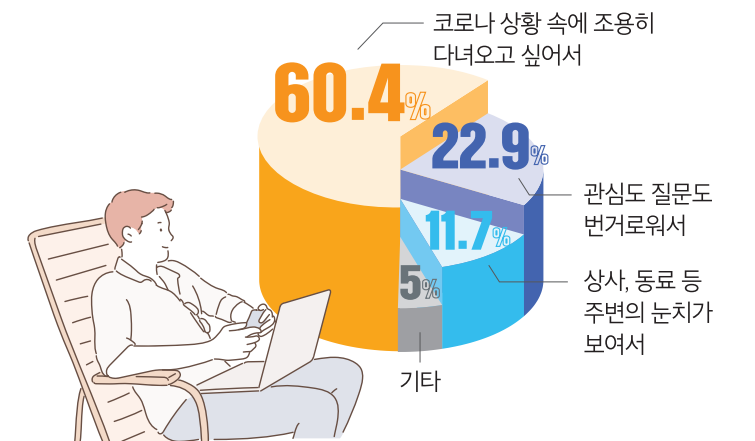
여름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복수 응답)



나의 여름휴가 계획 알릴까, 말까



여름휴가 계획을 알리지 않는 이유



G r o w t h

스스로의 삶을 성장시키는 책임감

아이들은 왜 마시멜로를 참았을까?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유명한 심리 실험이 있다. 무려 30년 이상 이어진 연구다. 이 테스트는 우연히 시작됐다. 한 유치원에서 유아들의 자제력을 알아보기 위해 마시멜로를 이용한 것이 시초였다. 실험에 참여한 유아들에게 15분만 참으면 마시멜로 두 개를 줄 테니 눈앞의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참아 보라고 했다. 600명의 유아 가운데 단 30명만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테스트를 통과한 아이와 그러지 못한 아이의 인생은 달랐다. 테스트를 통과한 유아들은 학교 성적이 더 뛰어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며, 연봉도 더 많았다.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비율도 낮았다. 물론 실험에 참가한 유아들이 마시멜로를 참은 이유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참기로 마음먹었으니 참아 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시멜로의 유혹에 빠져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누구나 자제력 높은,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다(多)가치 시대 삶의 법칙

가치 변동이 심한 사회에서는 지킬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사이에서도 혼란을 겪게 된다. 지금처럼 많은 가치가 출몰하고, 서로 갈등하는 시대에는 많은 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제까지 맞던 일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니 무엇이 맞는가에 대한 각각의 기준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치 기준 없이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해내기란 불가능하다. 또 단순히 가치 기준을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디테일한 수행 규칙까지 잘 다듬어야 한다. 게다가 저마다 다른 가치 기준 때문에 인간관계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상대와 가치가 충돌할 만한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령 상대를 배려한다고 한 언행이 오히려 상대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어서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많다. 그러니 소통과 공감에 더욱 힘쓰며 대화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가치를 정하고 상대와의 가치 충돌을 조심하며, 그러면서도 자기 가치를 끝끝내 지켜 내야 하기에 우리 삶은 전에 없이 복잡다단해졌다. 하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피하기만 해서는 잘 살기도 어렵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가치 혼돈의 시대, 일상은 힘들어졌지만 자기 일에서의 책임은 더 중요해졌다. 우리 각자의 일이 갖는 중요성이 커진 까닭도 있고, 나의 잘못 때문에 심대한 나비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 탓이다. 사회면을 가득 채운 사건·사고 가운데는 일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한 결과로 초래된 일이 무척 많다. 그러니 여러분은 긴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 일에서 꼭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이를 숙지해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단지 주어진 매뉴얼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일에서 접하는 새로운 상황이나 단계에서 알게 된 바른 대처법을 세심하게 정리해서 이를 철저히 지키는 책임감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자신이 어떤 일을 관리·감독 한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실행할 사항을 조금 과하다 싶게 찾아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물론 일에 대한 이런 태도가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결코 부담만 주지는 않는다. 책임감이 주는 결실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심지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심리학자 브루스 헤디(Bruce Headey)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15년간의 추적 연구를 통해 가장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3가지 삶의 원칙을 밝혀냈다.

첫째, 그들은 명확한 인생 목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고, 둘째, 그 목표를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절대 변명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며, 셋째, 우정, 사랑, 타인에 대한 봉사 등의 분야에서 건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가져다주는 것이 행복이었던 셈이다. 책임감 강한 삶의 태도가 순간순간 부담을 주지만, 중국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큰 만족과 보람을 안겨 주는 것이다.

신독하는 마음, 평정심의 지름길

다산 정약용은 ‘신독(愼獨)’을 매우 중시했고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 신독은 혼자 있을 때도 언행이나 마음가짐을 조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신독을 단지 사람이 없는 곳에서 행동과 마음을 조심하는 윤리적 태도로만 여기지 않았다. 다산은 신독에 관해 마치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나를 항상 지키고 있다는 도덕적인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신독의 태도가 아니라 신독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마시멜로 테스트에서 성공한 아이들은 인터뷰에서 규칙을 어겼을 때 자신에게 나쁜 감정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더 잘 참고 조심했던 것이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꼭 지켜야 할 것을 책임감 있게 지켜 나간 덕분에, 이후 좀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신독을 통해 만족과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책임감을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많은 것과 마주하며 살아간다. 책임감을 어겼을 때 생길 일을 미리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 참담함을 겪지 못했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혜란 어쩌면 그런 유혹을 미리 알아차리고, 그 결과를 미리 통찰할 줄 아는 혜안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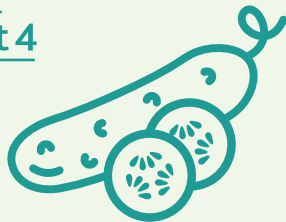
알쓸꿀잡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꿀팁 잡학 사전 : 여름철 피부 관리 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홀강스'가 대세라 해도 피약별 속 야외 활동이 잦을 수밖에 없다. 자외선 지수가 가장 높은 7월,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 직렬하는 햇볕과 바닷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명 '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먹어도 좋고 붙이면 더 좋은 피부 건강 지킴이 채소 Bes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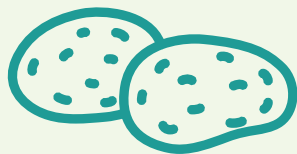
1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오이

오이는 피부를 생기 있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피로 해소와 진정, 미백 및 보습 효과가 뛰어나다. 자외선으로 손상돼 붉게 달아오른 피부의 열기를 식혀 주고 피부를 청결하게 해 준다. 얇게 슬라이스한 오이를 피부에 올려도 되는데, 껍질을 제거한 뒤 갈아서 글리세린과 밀가루를 섞어 바르면 더 효과적이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오이는 수분이 무려 95%에 달한다. 체내 수분 공급에 탁월한 이유다.

2



'땅속의 사과' 여름 햇감자

옛 조상들은 화상을 입은 상처에 감자를 썼다. 그만큼 열기를 식히는 효과가 탁월하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거즈로 덮은 뒤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 둔 감자즙을 발라 주거나 그냥 감자를 얇게 썰어서 피부 위에 얹어도 그만이다. 특히 햇감자는 사과보다도 비타민 C가 많아 '땅속의 사과'로 불린다. 고소한 제철 감자로 건강을 지키자.

3



슈퍼 푸드 알로에, 피부에도 좋아요

알로에는 달아오른 피부를 즉시 진정시키며, 수분을 공급해 준다.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반으로 잘라 피부에 몇 분간 붙여 주지만 해도 금방 효력을 발휘한다. 직접 재료를 사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해도 좋다. 혈액순환과 위장 건강에 탁월하지만 특유의 쓴맛과 꽃내가 부담스러워 그냥 먹기는 힘들다. 물이나 다른 채소류와 함께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한다.

4



수분 폭탄 수박 껍질! 버리지 말고 붙여요

여름철 음식 쓰레기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수박 껍질이다. 하지만 껍질의 흰 부분은 탈진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가장 좋은 천연 팩 중 하나다. 빨간 속살을 도려낸 뒤 흰 껍질만 잘게 잘라 냉장고에 넣어 두자. 피약별에 얼굴이 벌개진 날 꺼내서 얼굴에 얹어 주면 금세 진정된다. 고춧가루와 참기름을 넣고 무치면 근사한 여름 밀반찬이 되니 일석이조다.

무더위 속 피부 관리 체크리스트

거뭇거뭇 잡티 생기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요



피부 표피 아래에 있는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에 의해 자극되면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표피에 드러나게 된다. 그 형태는 주근깨, 검버섯, 기미 잡티 등 다양하다. 이러한 잡티를 예방하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 한다. 미관상의 이유뿐 아니라 자외선은 각종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피부암을 유발할 확률도 높아진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SPF 50, PA+++ 이상을 바르는 것이 좋다.

빨강게 달아오른 피부 열기 식히기부터 먼저



피부가 화끈거리며 열감이 느껴진다면 일광 화상으로 인한 염증이나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피부를 손으로 만지지 말고 진정시키는 것이 먼저다. 차가운 물수건이나 얼음으로 찜질하거나 차가운 화장수 또는 신선한 우유를 솜에 적셔 피부에 올려 열기를 내려 준다. 얼음 냉찜질로 화상 증상을 완화시킨 뒤에 감자, 오이 등으로 피부 진정 및 보습 관리를 하자.

허물처럼 벗겨지는 피부 무리한 제거는 절대 금물!



피부가 햇볕에 의해 손상되면 재생 과정에서 죽은 각질층이 떨어져 나간다. 이때 괜히 손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무리하게 벗겨 내면 재생 중인 피부막이 손상되기 쉽다. 흉터와 염증이 생기면 증상이 더 악화된다. 따라서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며 피부 속 수분을 촉촉하게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뾰루지 예방하는 꼼꼼한 세수 함부로 짜면 댕나요



휴가철 바닷가 염분이나 오염 물질, 피부에 남아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야외 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면 반드시 꼼꼼하게 세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손바닥 위에서 거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세수하고 말끔하게 행군다.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는 손을 대서 함부로 짜면 댕나기 쉬우므로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피약별과 자외선 두피에도 화상이?



강한 햇빛과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두피에도 화상을 입히기 쉽다. 두피에 화상이 발생하면 얼음주머니로 두피를 눌러 주며 마사지하고, 알로에 줄기로 두피를 문지르거나 알로에 겔을 발라 주면 열감을 줄일 수 있다. 머리를 말릴 때는 드라이어 대신 자연 건조를 한다. 두피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된 에센스를 바르거나 모자나 양산을 쓰는 것이 좋다.

덥고 습한 여름철 무좀 습도 조절로 예방해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좀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예방법은 단 하나, 바로 습도 조절이다. 곰팡이균은 물기가 많은 곳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통풍이 잘되도록 틈틈이 발에 바람을 쐬어 습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 통풍이 되지 않고 꽉 끼는 신발은 피하고, 오래된 신발은 갈창을 교체하거나 자주 세척해 준다. 매일 따뜻한 물과 향균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는 것은 필수다.

MZ세대가 주목하는 조각 투자



소액으로 유명 화백 그림 사고 사테크·돌테크를!

부동산이나 금, 은, 그림, 가방, 장신구 등 주식·채권을 제외한 다른 투자처(현물)에 투자하는 것을 대체투자라고 한다. 주식 등에 비하면 비교적 순탄하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 투자처이지만, 문제는 너무 고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단점을 기술 발전이 해결해 버렸다. 대체투자의 장점과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것이 바로 '조각 투자(소수점 투자)'다. 100억 원짜리 빌딩을 예로 들면, 100만 원만으로 100억 원 빌딩의 0.01%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이나 에르메스·샤넬 등 명품, 미술품, 음악 저작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본인의 취미를 살리면서 재테크도 할 수 있게 되면서 MZ세대가 열광하는 것은 당연지사. 최근 2030세대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암호화폐, 아니면 이 같은 소액 대체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필자 또한 최근에는 이 영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처음에는 재미로만 살펴봤는데 아뵐까! 생각보다 훨씬 안전하면서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투자처가 많았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영역에 집중하되, 몇 가지 리스크만 주의하면 꽤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브뤼셀 건물 구입에서 정부로부터 임대료 받아 볼까?

지난해 9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서비스업체 카사코리아란 곳에서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을 대상으로 공모에 나섰다. 7,000명의 투자자가 돈을 대고 이 건물을 인수한 뒤 임대 수익을 나눠 갖고자 한 것이다. 연 3%대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추후 되팔 때 차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

이 외에도 일부 스타트업이 강남 아파트나 빌딩 등을 조각 투자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강남에 있는 수십억 원 아파트의 지분 1%만이라도 소유자는 욕구에서 출발한 투자다. 이 플랫폼들은 투자자가 많이 모이면 장내 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필자는 이 같은 투자를 하고 싶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REITs)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전문 뮤추얼펀드로, 부동산을 통해 발생하는 배당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추천 종목도 하나 꼽아 본다면 지금 시점에는 제이알글로벌리츠를 추천한다. 이 상품은 유럽 벨기에의 브뤼셀파이낸스센터 빌딩을 소유한 리츠로, 현 주가(5,200원) 기준으로 지금 사면 연 8~9%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건물관리청)가 15년간 100% 단독 임차하고 있어 최소한 당장은 배당금을 받지 못할 염려가 없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차익은 덤으로 누릴 수 있다. 이 좋은 상품이 왜 이 가격에 거래되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수급 이슈 때문이다. 6~7월 현재 제이알글로벌리츠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다. 파는 투자자가 많고, 사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보니 비교적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주가가 형성돼 있다. 35층 높이의 브뤼셀파이낸스센터를 눈으로 보고 싶다면, 구글어스 사이트에서 빌딩명을 검색해 실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자마자 되팔아도 이익 내는 명품, 안전한 투자처로 부각

다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명품에 조각 투자하는 것이다. 바이셀스탠다드라는 신생 회사가 피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피스는 지난 4월 롤렉스 시계 11점을 묶은 '집합 1호'를 출시했는데, 30분 만에 1억 1,800만 원이 모여 마감됐다. 인지도 낮은 신생 회사의 첫 거래치고는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평가다. 피스는 롤렉스 시계 외에도 에르메스 가방, 포르쉐 자동차 등을 조각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피스는 투자자 모집과 동시에 실물 상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해 놓는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각 투자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공한다고 하니, 불안감을 조금 덜어도 될 것 같다. 피스 투자 상품의 예상 수익률은 연 25~30% 선이다. 여기서 잠깐, 어떻게 이런 고수익이 가능한 것일까?

이는 피스가 내놓는 상품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피스의 최대 주주인 신범준 대표이사는 이른바 명품족이다. 평상시에도 명품을 좋아하는 우수 고객이다 보니 좋은 물건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 덕분에 바로 되팔아도 수익이 남는 상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최근 샤넬 매장의 '오픈런'이 화제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십, 수백 명이 달려들어 어떻게든 하나를 사려는 고객이 많은 것이다. 피스로부터 상품을 인수하려는 이는 이 같은 오픈런이 귀찮고, 그 이상으로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자산가들이다.

포르쉐 차량만 해도 최근엔 대기 기간이 최소 1년이다. 1년 이상 기다리기 싫고, 그 이상의 현금을 더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 많아 중고가가 신차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이렇듯 돈을 내고 시간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명품 투자는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미술품은 조각 투자보다 신진 작가 실물 투자를 추천

필자는 개인적으로 뮤직카우와 같은 음원 저작권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 당장 투자할 땐 연 1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의외로 음악은 수명이 짧다. 물론 수십 년간 오래 듣는 노래도 많지만, 이런 명곡보다는 알려지지 않은 음악 위주로 매물이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작권 수입이 불안정하다. 당장은 수입이 발생하나 나중에는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브레이브걸스처럼 역주행하는 노래도 나오지만, 이런 노래는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미술품은 적극 추천하나 조각 투자는 추천하지 않는다. 미술품은 아무래도 소유의 매력이 크기 때문이다. 나중에 되팔 때도 나는 팔기 싫어도 다른 투자자들이 매각하겠다고 하면 따라야 한다. 따라서 미술품의 경우에는 조각 투자를 하느니 젊은 신진 작가의 작품을 10만~20만 원 지불하고 구입할 것을 권한다. 내 취향에 맞는 작품이라면, 설령 그 작가가 무명으로 끝나더라도 잃는 것은 별로 없다. 미술 플랫폼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도 되도록 실물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이유 중 하나다. 미술품 투자에 대한 재테크 서적은 최근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 살펴보고 구입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의 복수는 드라마의 것이다

악인을 처단하는 자경단을 그리는 드라마 속 복수가 남긴 고민에 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잘 알려진 것처럼 <함무라비법전>에서 유래했다는 이 동해보복의 원칙은 대체로 아만적인 복수를 설명할 때 손쉽게 인용된다. 그런데 사실은 오해다. 기원전 1700년대 고대 바빌로니아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에 의해 제정된 <함무라비법전>은 사적 복수를 용인하는 아만의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아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넘어가려는 의지가 기록된 성문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빌로니아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거대 국가였고, 이를 통치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이 필요했다.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으로 유목과 수렵 생활이 아닌 정착 생활로 접어든 당대의 인류는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한 탓에 갈등이 불거졌고, 분쟁이 발생하면 힘의 대결로 번졌다.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빈번했다. <함무라비법전>의 동해보복 원칙은 과한 폭력을 억제하는 효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문명의 근간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아만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법치 제도란 고대 사회에서부터 인류의 문명을 자리 잡게 만드는 중요한 근간이었다. 사적 복수를 억제하고 법치에 기반한 형벌 제도를 통해 공동체 사회가 지켜

야 할 이성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이를 기록한 성문법의 발전을 통해 문명사회의 울타리를 보다 단단하게 결속해 온 셈이다.

정의 구현이라는 판타지

<경이로운 소문> <빈센조> <모범택시> <대박부동산>까지, 올해 상반기에 인기를 끈 이들 드라마는 각기 다른 장르를 표방하고 있다. 악귀를 사냥하는 ‘카운터’들의 활약을 그린 <경이로운 소문>은 퇴마사와 슈퍼히어로 캐릭터 설정을 버무린 액션 스릴러다. <빈센조>는 이탈리아 마피아 캐릭터가 한국의 부패한 권력자를 응징하는 범죄 스릴러다. <모범택시>는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이들의 사적 복수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체의 활약을 그린 액션 스릴러다. <대박부동산>은 원귀가 깃든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원귀를 퇴치하는 퇴마사의 활약을 그린 오컬트 설정의 드라마다.

각기 다른 설정을 가진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법망 안에서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하는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구제하는 개인의 활약을 그리는 것이다. 악인에게 깃들여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악

귀를 사냥하고(<경이로운 소문>), 마피아보다도 더 지저분한 기업가와 정치인을 응징하고(<빈센조>), 법망의 그림자 속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로 인해 충분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약자의 복수를 대행하고(<모범택시>), 악귀가 된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소하도록 돕는(<대박부동산>) 이들의 활약상을 그린다.

이 드라마들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캐릭터를 묘사하고 제각각의 장르를 표방하지만 궁극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는 개인이 모인 집단의 활약을 그리는 점에서 유사한 카타르시스를 지향한다. 드라마에서 그리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이란 대부분 사회적, 제도적으로 구제받지 못한 소외된 약자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활약하는 인물들에게는 저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약자를 연민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심성을 품고 있다. 감정이 없는 법을 대신하는 공감의 주먹으로 약자를 유린하는 악인을 처단한다. 그렇게 현실의 불만을 해소하는 정의 구현 판타지를 구축한다.

불신과 복수의 알고리즘

2019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기관은 경찰, 국회, 검찰로 나타났다. 일선에서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믿는다고 답한 이들은 해당 조사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2~3% 수준에 불과했다. 그만큼 사법제도 안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이런 경향은 몇몇 인기 드라마가 얻은 공감대로 재확인된다.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하고 곤란한 사연을 해결해 주는 각각각색의 인물 등 장한다. 압축하자면 자경단의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자경단의 활약상을 그린 드라마들이 저마다 높은 인기와 좋은 반응을 얻은 건 약자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이야기 자체가 전하는 카타르시스가 높은 덕분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이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리하자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의 공감대가 높은 시청률로 변환된 셈이다. 어떤 식으로든 정의가 승리할 길 바란다는 마음이 읽힌다. 다만 그 승리가 꼭 합의를 규칙으로 정의된 정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건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바라는 정의란 정의가 아니다. 정의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그들이 바라는 건 약자를 유린하는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다. 복수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을지라도 허구에서는 가능한 복수에 열광하고 대리 만족한다.

드라마는 현실을 구하지 못한다

대리 만족 복수극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결국 드라마 밖의 세상을 근심하게 만든다. 하지만 드라마의 복수는 결국 드라마의 것이다. 현실을 구하지 못한다. 법치라는 것이 모든 이의 사정을 온전히 밝혀 줄 수 있도록 완벽하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불신하는 이들이 늘어 가는 세상도 걱정된다. 현실의 공분은 결코 드라마로 해소되지 않는다. 그저 더 자극적인 드라마를 통해 함께 자라날 뿐이다. 정의를 구현하는 드라마의 폭력성에 도취되고 더 큰 자극에 갈증을 느낄 뿐이다. 고구마 같은 현실 대신 사이타 같은 허구를 탐닉할수록 현실을 부정할 가능성만 높아진다. 제도의 효율성을 부정한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확장 편향에 가까운 음모론이 퍼져 나간 사례가 있다. 한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다음 날 실종된 청년이 5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살해 용의자라는 소문과 정황이 삽시간에 퍼졌다. 친구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범죄자라고 단정 짓는 듯한 언어가 차고 넘쳤다. 법이 가려내기 전에 심판하려 드는 이들로 가득했다. 심지어 해당 인물의 신상을 털고, 배후 세력이 있다는 소문을 퍼트리고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흥미로운 건 수많은 사람이 이 불확실한 주장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믿지 못해도 유튜브는 믿는다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법정에 자신이 지목한 범인을 세워 두고 판결을 내린 뒤 처벌을 준비 중인 것만 같았다. 경찰 수사 끝에 해당 인물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발표됐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지금도 무분별한 의심을 생산하는 이들의 언어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그야말로 확장 편향의 시대다. 법치에 대한 의심은 필요한 일이다. 제도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므로 사람의 한계가 제도의 한계로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밀도 끝도 없는 의심을 바탕으로 둔 불신은 괴물을 키운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왜곡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을 통해 돈벌이에 탐닉하는 유튜브들은 무분별하게 음모론을 생산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아슬아슬하게 흔든다. 문명의 근간을 부정한다. 위험한 일이다. 무분별한 공분은 대리 만족을 넘어 현실의 질서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악당은 있어도, 영웅은 없다. 법을 믿지 못하는 세상에서 영웅을 기다리는 건 힘든 일이다. 이성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간이다.



Health Infographics

생명의 통로, '목' 건강 이야기

목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음식, 공기, 여러 신경이 목을 통해 이동하며 한 생명이 유지된다.
 생명의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목과 관련된 질병을 알아보고 예방해 보자.

역류성 식도염

- 정의** 위 속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 원인** 위와 식도 경계 부위 조절 기능의 약화
- 증상** 가슴의 흉골 뒤쪽이 뜨겁거나 쓰라린 가슴 쓰림, 연하 곤란, 연하통
- 예방** 기름진 음식,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탄산음료, 담배·술 자제하기

목 임파선염(기쿠치병)

- 정의** 목 부위의 림프샘이 커지고 발열과 통증이 동반되는 양성 염증성 질환
- 원인**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자가면역 반응, 비정상적 면역 반응
- 증상** 관절통, 열, 체중 감소, 발진, 식욕 부진, 피로감
- 예방** 만성적인 피로나 과로 피하기, 개인위생 관리,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 유지

갑상선 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 병)

- 정의**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갑상선 중독증을 일으키는 상태
- 원인** 자가면역 질환, 갑상선 호르몬 과다, 요오드 과다
- 증상** 눈 돌출과 안구건조증, 목 부위 비대, 감정 기복, 설사나 변비, 불임 및 성기능 저하
- 예방** 흡연은 갑상선 안구병증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

인후두염(목감기)

- 정의** 바이러스로 인해 인두,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반응
- 원인** 바이러스나 세균, 무리한 성대 사용, 흡연, 음주, 장기간 성대 사용
- 증상** 기침, 목의 이물감, 목의 통증, 목소리 변화, 삼키기 곤란
- 예방** 구강 청결과 수분 유지, 건조한 계절에 가습기 틀어 놓기, 금연·금주

Healthy Guide

일상생활 속에서 목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기기의 사용 증가로 목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처럼 잘못된 습관이 목 관련 질환으로 이어진다.
 일상생활 속 나의 목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목 통증 멈춰!

알아두면 도움 되는
 목 증상 완화방법



Healthy Guide 01 따뜻한 물 조금씩, 자주 마시기

따뜻한 물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어요



Healthy Guide 02 목에 좋은 음식 섭취하기

바나나는 목의 가래 증상을 완화하고 생강은 목의 염증을 가라앉혀요
 당근, 무, 매실, 배도 목이 아플 때 먹으면 좋아요

목 디스크 멈춰!

잘못된 생활 습관 고치고
 목 디스크 예방하기



Healthy Guide 03 앉아 있는 자세를 바르게

허리는 의자에 붙이고 앉아 머리-목-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요



Healthy Guide 04 수면 자세를 바르게

6~8cm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옆으로 누워 새우잠을 자는 것보다 천장을 바라보고 눕는 게 목 건강에 좋아요

나도 혹시? 거북목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 서 있을 때 머리가 상체보다 앞으로 나와 있다
- 어깨와 등이 구부정하고 어깨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
- 목덜미에 뻐근함 및 통증이 있다
- 뒷골이 당기며 두통이 자주 발생한다
- 숙면이 어렵고 개운하지 않다
- 팔이 자주 저린다



교정홍보대사 위촉식 가수 강진·목비, 배우 송지인 “교정과 국민을 잇는 연결 고리가 되겠습니다”

가수 강진과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이 새로운 교정홍보대사에 위촉됐다. 교정을 대표하는 얼굴로 한 해 동안 교정행정을 널리 알려줄 교정홍보대사 3인의 위촉식 현장 모습과 이후 활동 계획 등을 전한다.

위촉식을 통해 교정홍보대사 공식화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영희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정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새로운 교정홍보대사로 활동할 위촉 대상자는 가수 강진, 가수 목비, 배우 송지인이다. 박범계 장관과의 환담을 마치고 행사장에 들어선 이들은 교정공무원 제복을 입은 데다 평소 쌓인 친근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교정홍보대사로서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는 박범계 장관의 당부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이날 세 홍보대사에게 차례로 위촉장을 전달한 박범계 장관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정행정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구현하는 데 교정홍보대사 여러분이 큰 몫을 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촉장을 받으면서 공식화한 새로운 교정홍보대사 3인의 소감과 각오는 이에 부응하는 답변으로 손색없었다. 먼저 가수 강진은 “그동안 군부대나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위문 공연은 많이 해 왔지만 교정홍보대사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한다”면서 “교정홍보대사로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기본이고, 전국의 교정시설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희망,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밝혔다. 가수 목비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을 올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소감에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를 알리고 교정 활동을 널리 홍보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교정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나 자신부터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배우 송지인은 “유튜브를 비롯해 교정을 알리는 홍보 채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면서 “앞으로 여러 채널에 출연해 교정행정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개인적으로도 모범이 되도록 생활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정홍보대사 위촉식은 교정과 일반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사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인 만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참여 인원과 행사 내용을 이전보다 대폭 축소해 진행했다.

3인 3색 매력으로 다양한 교정홍보활동 기대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 올해 교정홍보대사로서의 첫걸음은 가수 목비가 뒀다. 위촉식 전인 지난 5월 28일,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교정시설에 울려 퍼지는 교화방송 라디오 <희망이야기>에 일일 DJ로 출연한 것. 평소 라디오 DJ를 꿈꿔왔다는 그녀는 이날 방송을 통해 재치 있는 입담과 함께 행사의

여왕답게 파워풀한 라이브를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가수 목비를 시작으로 3인의 교정홍보대사는 앞으로 1년간 교화방송 라디오 일일 DJ 활동, 교정본부 유튜브 <교도소 24시>와 토크 콘서트 형식의 영상 출연, 수용자 교화 행사 공연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해 교정 정책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교정을 대표하는 얼굴로 교정 관련 영상물, 포스터, 팸플릿, 캠페인, 광고 등에 출연해 서로 다른 매력으로 교정을 홍보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교정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강진은 1975년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데뷔해 ‘막걸리 한잔’을 비롯해 ‘땀발’, ‘삼각관계’ 등을 히트시킨 주인공으로, 그의 노래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1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신곡 ‘마부’를 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수 목비는 1995년 ‘인천 청소년 가요제’ 동상 출신으로, 2007년 1집 앨범 <First Breath> 발표 후 ‘그대 하나’, ‘애인일까 친구일까’ 등을 히트시키며 주로 라이브 무대에서 활동해 왔다. 배우 송지인은 2008년 여성 듀오 다비치의 뮤직비디오 ‘사랑과 전쟁’으로 데뷔해 주목을 끈 후 60여 편의 유명 광고에 출연했다. 영화 ‘인간중독’과 ‘성혜의 나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으며, 최근 TV조선 드라마 <결혼작사 이혼작곡>에 출연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트
결	라
국	우
	마
사	
람	치
과	유
	에
사	서
람	
	가
사	장
이	
의	중
	요
관	한
계	
	것,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분류 심사가 끝나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남는 시간 동안 영화를 보여 주고 감상문을 받았습니. 그중 기억에 남는 10대 수용자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세상의 험한 경험을 많이 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곳까지 온 소년입니다. 영화 속에서 가족들이 모여 삼겹살을 먹는 장면을 본 소년은 감상문에 “삼겹살 먹고 싶다”라고만 적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여 주면서 우리가 원했던 모범 답안은 ‘가족의 중요성을 깨달음’ 같은 것이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로 자란 소년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험한 아이들과 어울리며 비행 청소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과 달리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내다 결국 보호시설과 소년원을 거쳐 이곳 구치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소년에게는 가족이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당장 교도소 안에서 먹을 수 없는 것, 지금 자신에게 결여된 삼겹살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소년은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상태입니다. 자신만의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범죄에 영향을 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수용 생활을 잘 해낸다 해도 형기 종료 후 사회적 지지 없이 앞으로 사회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영화를 보여 주고 감상문을 받아 오는 게 다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니 좀 더 깊이 연구해 보고자 <영화로 만나는 트라우마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서 트라우마란 어찌할 수 없는 필수 불가분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영화를 예로 들며 트라우마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해 나가는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를 소개했기 때문인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또한 대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지만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어 조금은 가볍게 부담을 덜고 다가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 책은 “트라우마는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며 비밀스러운 경험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뚜렷하지 않아 눈치채기 어렵고 당사자도 정확히 표현하기 쉽지 않다”라고 알려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정인이 사건’을 비롯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떠오른 <아무도 모른다>도 일본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도 트라우마다’라는 부제로 아동기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모의 돌봄이 없는 것도 트라우마라고 알려 줍니다. 영화 속 네 명의 아이는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난 엄마에게 버림받고 근근이 살아가던 중 동생이 죽자 시체를 유기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내면과 소통하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른들에게 버림받은 영화 속 네 명의 아이는 당연히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평생 동안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구치소에서 만났던 수용자들은 앞서 말한 소년 수용자처럼 어릴 때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요?

이과 관련해 영화 <와일드>에서는 “몸을 격렬히 움직일수록 마음은 평온해진다”는 말을 해 줍니다. 이 영화에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이를 벗어나서는 어머니가 갑작스레 암으로 사망한 아픔을 겪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가히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많은 아픔을 겪은 주인공은 무기력하게 술과 약물에 파묻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멕시코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을 잇는 극한의 트레킹 코스에 도전하기로 합니다. 육체적 피로가 심해지면 결국 자신의 신체 감각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때로는 몸을 격렬히 움직이면서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트라우마를 떨쳐 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부모 또는 치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청소년은 양육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경우 트라우마 증상에 악영향을 받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먼저 양육자가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아이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수용자들은 앞서 말한 소년처럼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이들을 상대하는 우리 교도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앞으로 좋은 치료법과 약이 개발되더라도 트라우마 치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이 아닌 ‘상상치 않은 사람들끼리의 연결’을 통해 치유와 화해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수용자에게 영화를 보여 주고 감상문을 받는 정도로 그들의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교도관과 수용자 같은, ‘상상치 못한 사람들끼리의 연결’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꾸준히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책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뤄지기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트라우마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영화는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끝이 나지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의 삶은 영화 밖에서 계속됩니다. 그들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에 등장하는 영화 속 주인공과 함께 공감하며 그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 주세요.

교정공무원 여러분의 생각과 일상 이야기를 담은 원고를 보내 주세요. 투고해 주신 작품은 독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대나무숲 일기’에 게재됩니다.

보내는 곳
correct2015@naver.com

원고료
문화상품권 10만 원

대체복무제도 및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 ①

강태경**



목차

I. 서론

II.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도

III.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

IV. 결론

* 본 논문은, '제58회 한국교정학회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2020. 11. 20.)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tgahng@gmail.com)

▶ 접수일(2021. 4. 4.), 심사일(2021. 4. 16.), 수정일(2021. 4. 27.), 게재확정일(2021. 4. 28.)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대체복무제도가 대체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인권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제어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체역 복무관리, 차별, 징벌적, 민간적

I. 서론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일대 전환이 있었다. 1953년 이래 19,300명 이상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수감되었다(Morton 등, 2020: 6).¹⁾ 2004년부터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양

- 1)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모두 더하면 35,800년이 넘는다고 한다(국제엠네스티, 2016).
- 2)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 3) 헌법재판소 2018. 6. 28.자 2011헌바379 결정 등.
- 4) 2016도10912 판결과 2011헌바379 결정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관한 국내의 논의 전방에 관해서는 '강태경/허황/임대근, (2019), 대체복무제도 시행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이광수, (2018), 대체복무제도의 모델에 관한 연구, 박영사' 참조.
- 5)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합헌)' 중 재판관 김경일과 재판관 전호숙의 반대 의견.

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서 전향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2018년 11월 31일 대법원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병역법 제82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앙 등이 포함된다 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²⁾ 한편 같은 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³⁾ 이로써 1948년 국군이 창설된 뒤 72년 만에 종교적 신념 등에 근거하여 '무기를 들지 않을 권리가 인정되었다.'⁴⁾ 이 사법적 판단 이후 2019년 12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한국 사회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여 소수자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존중하고 가능한 한 수용함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⁵⁾을 닦고 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서 합숙하면서 공익 업무에 36개월간 복무한다. 이는 2021년 현재 육군 및 해병대 병사 복무기간의 2배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30일 제정된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는 대체복무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및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19조는 대체업무를 '급식, 물품, 보건 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 및 그 밖에 대체복무기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정하였다.

2020년 10월 26일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이루어졌다. 처음 소집된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별도의 심사 없이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어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복무제도와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의 인권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지를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 '차별 금지', '공익성·비징벌성·민간성 요건 충족 여부', '강제노동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규칙의 주요 내용 중 '보수', '보호대원', '인권진단 및 고충처리', '실태조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도

1. 현행 대체복무제도의 주요 내용

대체역법 제3조 제1항은 대체역 편입신청자를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동법 제4조는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5조는 각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조인, 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권전문가,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29명의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국회 국방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원을 추천하고,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위원을 임명한다(대체역법 제5조).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은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는 대체복무기관을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열거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고(대체역법 제18조), 국방부 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대체역법 제19조). 현행 복무기간 36개월은 2021년 육군 현역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에 해당한다.

대체복무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대체역법 제22조). 이때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해야 한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대체역법 시행령 제31조).

대체역법은 복무이탈에 대해서 연장복무 규정(대체역법 제24조)을, 부정 편입에 대해서 대체역 편입 취소 규정(대체역법 제25조)을 두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대체역법 제24조 제1항). 그리고 대체복무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는 등의 경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대체역법 제25조 제1항).

대체역법 제26조는 대체복무를 마친 효과로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하도록 소집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상에는 현역복무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도 포함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 또는 보충역 대신 대체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체역법에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규정을 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강태경, 2018: 134).

2.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검토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⁶⁾는 '결의 1998/77'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심사를 위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책결정기관'을 마련하여 이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는 '공의적이고 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혹은 민간적(non-combatant or civilian) 성격'이어야 한다고 밝혔다(UNCHR, 1998).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도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라는 지침서에서 ① 대체복무자에게 배정되는 업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신념과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② 민간대체복무는 군의 영역 밖에 있어야 하며 군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되며, ③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OHCHR, 2012). 또한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UNHRC)는 배종범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청원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군복무에 갈음하여 군의 영역 밖이어야 하며 군의 감독을 받지 않는 민간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체복무의 성격은 징벌적이지 않아야 하며, 공동체에 대한 진정한 봉사되어야 하고 인권 존중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채택함으로써 종래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UNHRC, 2020).⁷⁾

병역의 이행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인 자유권을 제

6) 양현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7) 정민규 등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642-1741, 2011년 3월 24일에 채택한 견해, 7.3항 참조; 김종남 등 대 대한민국, 개인청원 1786/2008호, 2012년 10월 25일에 채택한 견해 7.4항 참조; Atasoy and Sarkut v. Turkey, 10.4항; 김영관 등 대 대한민국, 7.3항; Abdullayev v. Turkmenistan, 7.7항; Mahmud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7.5항; Ahmet Hudaybergenov v. Turkmenistan, 7.5항; Japparow v. Turkmenistan, 7.6항; Matyakubov v. Turkmenistan, 7.7항; Nurjanov v. Turkmenistan, 9.3항; Uchetov v. Turkmenistan, 7.6항; and Durdyev v. Turkmenistan, 7.3항.

한하기 때문에 국내법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규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근거인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서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국제인권규범이 주요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유엔인권위원회 등이 제시한 합리적 대체복무제도의 요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1)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기구

2020년 6월 29일 대체복무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법조인, 학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 인권전문가, 공무원 등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심의 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되었다. 대체역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 사유를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구분하고, '종교적 신념'에 대한 심사에는 신앙기간, 실제 종교활동 여부 등 8개, '개인적 신념'에 대한 심사에는 신념의 내용, 형성동기, 외부표출 등 8개의 고려요소를 마련하였다(국방부, 2020). 또한 대체역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삶 전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인권을 절차적·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보호헌장」 및 「인권보호조사준칙」을 제정하였다(국방부, 2020). 그러나 현행 심사 제도가 신청자에게 서면에 의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실상 신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운용 방식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황일호, 2020: 19). 대체역심의위원회는 대체역 편입에 관한 심사·의결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행정형 위원회이다. 행정형 위원회는 사법심사에 비해 판단의 신속성·전문성·민주성을 도모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 여부는 신청자의 향후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서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강태경 등, 2019: 145). 심사 결과 대체역에 편입되지 못했다면 신청인에게는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결정의 개인적·사회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철학적, 심리적, 종교적, 역사적 관점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형 위원회는 사법심사에 비하여 소속 위원들이 임명권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위원회의 결정이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강태경 등, 2019: 145). 다시 말해, 대체역심의위원회가 병무청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담보할 수 있는 판정기구인가가 문제이다. 심사위원회의 소속은 위원회의 위상과 판정의 공정성 담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운용하였던 국가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판정기구의 소속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병무국이, 핀란드에서는 고용경제부가, 대만에서는 내정부(한국의 행정안전부)가, 노르웨이에서는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관리한다. 한편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와 복무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정부기구로 신설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재승 교수는 대체복무요원의 판정 및 대체복무제도의 운영, 정책수립, 시설지정, 제반사항을 결정할 기구로서 대체복무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이재승 등, 2018).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방안이다(강태경 등, 2019: 146). 대체역심의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대체역 편입 심사라는 매우 제한적인 병무행정을 위해 별도의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이광수, 2018: 304). 현재 대체역법은 대체복무기관

으로 구급시설만 예시로 들고 있고 그 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적 복무 영역이 발굴되려면 대체복무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의 업무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협조와 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강태경 등, 2019: 147).

또 다른 문제로는 위원의 자격 조건을 들 수 있다. 대체역법에서 정신과 전문의를 위원의 자격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의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평화주의적 신념에 근거한 진지한 결정이지 정신장애가 아니다. 그리고 대체역 편입 신청자는 징병신체검사나 대체역편입 신청 신체검사 과정에서 심신장애에 대한 평가를 이미 받게 된다. 또한 대체역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을 위원의 자격으로 정하고 있기에 신청인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상 결정인지를 다면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 경력자를 위원의 자격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대체역법에서 위원의 구성에서 성비를 고려하지 않는 점이 아쉽다. 국방부가 마련하였던 당초 대체역법안 제8조 제6항은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이념을 반영했다. 그러나 현행 대체역법에는 이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진지한 양심상의 결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성별에 상관없는 문제이다. 또한 남성 위원의 경우 자신의 군복무 경험이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 장치로 여성 위원을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 금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1998/77'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에 대한 차별을 금지

하고 있다. 이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병역법⁸⁾은 병역 감면, 병역처분 변경, 복학·복직 보장, 보상 등에서 대체복무자를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와 동일하게 보호한다.

첫째, 병역법 제63조의2는 대체보무요원도 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해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하거나 소집을 해제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둘째, 병역법 제65조의2는 대체복무자도 병역처분 변경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대체복무자도 전·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제외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복무 중 가족과 함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소집 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대체복무요원도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와 마찬가지로 36세부터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병역법 제71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등의 경우에는 38세부터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대체역의 병역의무도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 및 전시기로역과 마찬가지로 40세까지 이다(병역법 제72조 제1항).

넷째, 대체복무요원도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와 동일하게 복학·복직 보장 및 학업·직장 보장 규정인 병역법 제73조 내지 제74조의4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학교 및 직장은 대체복무자에 대하여 휴·복학 또는 휴·복직을 각각 보장하고(병역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소집에 응하는 학생 또는 직원에 대하여 소집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병역법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또한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

요원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상한령을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야 한다(병역법 제74조의2).

다섯째, 대체복무자는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보상 및 치료 규정, 재해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병역법 제75조 내지 제75조의3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 대체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고(병역법 제75조 제2항),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 등을 얻은 경우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병역법 제75조의2 제1항).

그러나 부당한 복무 이탈에 대한 제재, 복무 장소,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처우에서는 다른 종류의 병역복무자에 비해 대체복무요원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첫째, 대체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대체복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통산 8회 이상 근태 관련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에 대체역 편입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역 외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대체복무요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는 사회복무요원이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대체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처벌을 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복무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장에 방점을 두었던 의원 발의 법률안들에도⁹⁾ 이와 같은 편입 취소 조항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편입 취소는 병역거부의 근거가 되는 '양심'에 복무의 '성실성'이 포함된다고 전제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연장복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1항과

비교하여 적절하다.

둘째, 대체복무 장소가 현재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로 국한된 것은 차별의 소지가 크다(대체역법 시행령 제19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서 1년 6개월간 복역해야 했던 이전 상황과 교정시설에서 3년간 합숙 복무해야 하는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법적 지위는 '범죄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로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대체복무 장소가 교정시설로 국한되어 있기에 '양심적 병역거부-교도소'라는 통상적 관념의 연결은 사회적으로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자를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체복무 장소를 협소하게 규정한 현행 시행령에는 차별의 소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출퇴근 형태의 복무나 검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다. 병역법 제65조 제3항은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 중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직 허가를 사전에 받아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에 대체역법은 합숙 복무만 허용되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은 자녀가 있더라도 대체복무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을 할 방법이 없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가장인 대체복무요원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대체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이혜리, 2021).

8)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1. 1. 1.).

9) 박주민의원안 제33조의28, 전해철의원안 제33조의28, 이정희의원안 제33조의20, 김부겸의원안 제43조의16, 노회찬의원안 제33조의25, 임종인의원안 제43조의14 등 참조.

교정 NEWS

교정 7월호

제8대 이영희 교정본부장 명예 퇴임식 개최



교정본부가 설치된 이래 여성 최초로 교정본부의 수장을 맡은 제8대 이영희 교정본부장의 명예 퇴임식이 6월 28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명예 퇴임식은 교정·보안정책단장 및 각 과장이 참석했으며, 재직기념패 전달과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다.

1989년 교정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한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2020년 7월 1일 제8대 교정본부장 취임 후 약 1년 만인 2021년 6월 30일 공직을 떠나게 됐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법무부 사회복지과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 일선 주요 보직을 역임한 교정행정 전문가로서 32년간 교정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힘써왔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재임 기간 동안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실현을 목표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대체복무제의 성공적 정착,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마련, 접견 제도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공로연수제도 개선, 인권 친화적 교정 시설 표준 설계안 마련 등을 통해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했다. 퇴임사를 통해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서로 화합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면서 "가슴 속에 '교정'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담고 여러분을 응원하며 조력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은 삶을 경주해 가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체복무 시행기관 방문



- 일시·장소** 6. 18.(금) 10:30~12:20, 천안교도소
- 방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8명
 • 위원장, 상임위원(2), 침해조사국장, 차별시정국장, 군인권조사과장, 대전인권사무소장, 비서실장
- 주요내용**
 • 대체복무 생활관 등 복무 현장 확인 및 인권 상황 점검
 • 대체복무요원 간담회 등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신현태
서울지방교정청장 퇴임식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6월 25일 제33대 이경식 서울 지방교정청장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경식 청장은 약 25년간 최선을 다해 근무했으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한창이던 올해 1월 25일 취임해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위기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퇴임식은 이경식 청장 가족 내외와 청사 내 직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했다.

서울구치소 / 교사 김상혁
교정협의회 물품 기증
 서울구치소는 6월 2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얼음 생수 40,000병을 기증받았다.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이겨 낼 수 있도록 얼음 생수를 기증한 교정협의회에 감사함을 전한 서울구치소는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교정행정을 구현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와 교정교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청렴 표어 공모전 개최
 안양교도소는 6월 4일 청렴 실천 및 갑질 근절 표어 공모전 우수작을 선정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약 2주간의 응모 기간 동안 총 62편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직원들의 투표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표어는 청렴 계단 및 배너로 제작해 청렴 문화 확산 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구치소 / 교사 홍진석
유관기관 합동 도주 사고 방지 훈련 실시
 수원구치소는 6월 14일 수원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용자 도주 사고 방지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검사 조사 중 출입증 탈취 후 승강기를 이용해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수원구치소는 검사 조사 시 계호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수원지방검찰청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감 박창희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연구용역 연구진 방문
 6월 21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진행 중인 '아간(교대) 근무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실태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연구진이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연구진은 직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심신건강 실태를 파악했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인천구치소는 6월 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헌혈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사태가 지속되자 의료 현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직원들의 참여로 추진됐다. 인천구치소 직원들은 매년 3~4회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교정협의회 물품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6월 9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부채 2,200개를 기증받았다. 이날 기증은 혹서기를 맞아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원불교 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무기 관련 규정 및 사용법 교육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 관련 규정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직원교육실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장비서무들을 자체 강사로 임명했으며, 무기 사용 요건 및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정년 및 명예 퇴임식 개최
 의정부교도소는 6월 28일 2021년 상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족 직원들이 참석해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앞날을 축하했으며, 교정본부장 기념패 등을 증정하며 퇴임을 기념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한국교회복지재단 물품 기증
 여주교도소는 6월 16일 한국교회복지재단으로부터 수용자 혹서기 극복을 위한 생수 10,000병을 기증받았다. 남준락 소장은 "수용자가 혹서기를 견디는 데 필요한 생수를 기증해 주신 재단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연구용역 연구진 방문
 6월 18일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진행 중인 '아간(교대) 근무 교정공무원 심신건강 실태 및 관리 방안' 연구용역 연구진이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했다. 연구진은 교정시설 내 아간 근무 현장을 관찰하고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피로도 및 정신건강 실태 등을 파악했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정년 퇴임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6월 30일 정년퇴직을 앞둔 선배들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퇴임식에서는 30여년간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선배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후배들이 참석해 새롭게 시작하는 선배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원주교도소 / 교사 김승현
원주로타리클럽 물품 기증
 원주교도소는 6월 17일 원주로타리클럽으로부터 KF94 마스크 5,000장을 기증받았다. 김남주 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수용자 처우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치과 방문 진료 업무협약식 개최
 강릉교도소는 6월 2일 강릉의료원과 수용자의 치과 방문 진료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박중관 소장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처우 향상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옥수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 개최
 영월교도소는 6월 21일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조리한 경조사 문화 개선'을 주제로 개선해야 할 문화에 대해 토의했다. 김현우 소장은 "부조리한 경조사 문화를 개선해 조직 문화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양인호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 비상안전기획관은 6월 28일 강원북부교도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개청 이후 국가중요시설로의 자리매김을 위해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북부교도소의 수용 시설 방호 실태 및 층주 계획 시행 태세를 점검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 개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6월 7일 반부패·청렴정책 실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권위적인 조직 문화 및 부조리한 경조사 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실시했다.

소망교도소 / 8직급 전성렬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소망교도소는 6월 17일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훈련 규모를 축소했지만,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 능력을 강조하는 등 내실 있게 진행했다. 최근 물류센터 대형 화재 등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장성일
건기왕 선발대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된 생활을 해 온 직원들에게 운동을 시작할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경쟁을 통한 직원 개인의 건강 증진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3주간 건기왕 선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건기왕 선발대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워크온'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이종우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대비 훈련 실시
 대구교도소는 6월 18일 기관 특성에 맞는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대비

자체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발생 상황을 대비해 격리 수용동을 지정하고, 확진자-접촉자 이동 동선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17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생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산구치소 직원들은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홍성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6월 14~15일 이틀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정본부 심리치료과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 속에서 '수용자 관리'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은 이러한 교정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체계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 방문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6월 9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직원 간담회 및 이전 예정 부지 방문했다. 이날 이영희 교정

본부장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고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기관장 주재 청렴 교육 실시

부산교도소는 6월 18일 인사, 구입, 지출, 영치금 기증품 등 상대적으로 부조리에 취약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장 주재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일상의 청렴이 일생의 청렴이 된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김도형 소장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업무에서 다져진 청렴은, 일생의 청렴을 지켜 가는 단단한 원칙과 철학이 된다"며 일상적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지진대피 및 소방훈련 실시

포항교도소는 6월 17일 구내작업장에서 지진·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포항교도소 자위소방대 및 수용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지진·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초동 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주영
호국보훈의 달 기념 성금 전달

진주교도소는 6월 8일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해 보훈 가족에게 사랑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 청렴한 공직 사회 구현 및 숭선수범하는 공직자로서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자, 6·25전쟁 무공수훈자 유족을 방문해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직원 건강검진 실시

대구구치소는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직원들은 다양한 검진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번 검진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김세진
교정협의회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1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 교화 지원을 위한 생수 10,000병을 기증받았다. 주정민 소장은 "코로나19 여파와 무더위 속에서 이뤄진 교정협의회 생수 기증이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대체복무요원 전입 신고식 개최

안동교도소는 6월 18일 대체복무요원 38명의 전입 신고식을 개최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안동교도소 대체복무 생활관으로 입소했다. 금용명 소장은 "대체복무요원들의 입소를 환영하며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도 황지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16~17일 이틀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심리상담사는 격무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으로 선별해 뇌

파축정기와 해석 상담 등을 통해 스트레스 측정을 진행했다. 또한 직원들은 체형 검사를 통해 불균형한 체형 교정과 근육 이완 등 바른 체형 유지와 유연성 회복에도 노력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개청 100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6월 15일 개청 100주년을 기념해 타임캡슐 봉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소장, 각 과장 등 소수의 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다. 타임캡슐 안에는 개청 100주년 기념 영상과 각종 행사 자료 등이 소장돼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박래수
수용자 문화 예술 교육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6월 4일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문화 예술 교육을 실시했다. 수용자들의 자신감 및 자아 성취감 향상과 건전한 사회 복귀에 도움을 주자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목
심신치유실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울산구치소는 6월 1일 '심신치유실 공모전' 당선 직원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현판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21건의 문구가 접수됐으며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1점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문구는 '다운쉼터'이며, 다운은 순우리말로 '좋은 일이 모인다'라는 뜻이다. 당선된 이병구 교위는 "직원들이 지친 몸을 휴식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문구를 만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경주교도소는 6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의 출장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에 직원 19명이 참가했다. 박원홍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족한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 릴레이 운동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공직자로서 더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대지구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오홍균 대지구방교정청장이 6월 21일 통영구치소를 방문했다. 오홍균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속 소속기관의 방역 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보고 받은 다음 선별진료소와 격리수용동 등을 둘러보며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밀양구치소 / 교도 한승훈
교정장비 사용법 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6월 14~1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정장비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교정장비 사용·작동 능력을 배양했으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교정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업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코로나19 외부 방역 전문가 초빙 교육 실시

상주교도소는 6월 9일 코로나19 외부 방역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은 공공시설의 세부 방역 방법, 방호복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과 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유입 차단 및 전염병 예방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승현
대전국립헌충원 참여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대전헌충원을 방문해 참여했다. 헌충원을 방

문한 김진구 청장과 직원 일동은 묵념과 헌화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된 호국 영령과 수많은 순국선열의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겼다.



대전교도소 / 교위 김시영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대전교도소는 6월 15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챌린지에 참여한 서호영 소장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챌린지에 동참해 기쁘다"면서 "대전교도소는 전 직원과 함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청주교도소 6월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김재익 소장은 "혈액 부족으로 응급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헌혈을 실시하는 등 사랑의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사 전인호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6월 9일 재난 안전 대비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천안교도소 자위소방대와 천안서북소방서 성거119안전센터가 합동으로 화재 상황에 대비해 화재 진압·피난 유도 및 응급 구호 등 실제 상황을 재연해 진행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야간 긴급 출동 훈련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6월 15일 야간 응급 환자 발생에 대비한 긴급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재연해 현장 근무자의 신속하고 적

정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호 장비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진행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청렴 T/F팀 회의 개최

공주교도소는 6월 18일 2분기 청렴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분기 동안 추진한 업무 중 부조리 발생 개연성이 있는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제안 등을 통해 교정부조리 척결 및 교정공무원의 청렴 의식을 향상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구치소 / 교위 류종근
대전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김진구 대전지방교정청장은 6월 4일 충주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진구 청장은 구치소 정책 현장 순시 및 기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홍성교도소 / 교사 조경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홍성교도소는 6월 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진석 소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를 계기로 전 직원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중요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춘계 직원 문예 대회 및 시상식 개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17일 춘계 직원 문예 대회

교정 NEWS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총 30명의 직원이 참여해 평소 숨겨 뒀던 문예 창작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우수한 작품을 제출한 직원 중 김현도 교감이 대상, 이창구 교감이 최우수상, 이종호 교정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직원을 위한 선물 증정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보안행정팀은 6월 16일 보안 현장의 근무 여건 향상을 위해 '넥밴드 선풍기'를 선물했다. 보안행정팀 최중식 교위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냉방이 되지 않는 공사계호, 접견동행, 야간 순찰, 운동 근무 직원들이 넥밴드 선풍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손준성

외부 강사 초빙 온라인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15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성폭력·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종란 강사는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확보 노력과 직원 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윤정구

광주지방교정청장 소통 및 대화 나눔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5월 31일부터 6월 8일까지 부서별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지서 청장과 소통 및 대화 나눔의 자리를 마련했다. 직원들은 구지서 청장이 생각하는 직장,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광주교도소는 6월 21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재고량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직원들은 헌혈을 통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손

길을 전하고, 자신의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전주교도소는 6월 16~17일 이틀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간의 격무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물품 기증
순천교도소는 6월 8일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로부터 초코파이 1,500상자를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수용자를 위로하고 교화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목포교도소 / 교도 김형창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목포교도소는 6월 7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정봉수 소장은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 문화로, 목포교도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대우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군산교도소는 6월 2일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협조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헌혈 운동은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실시됐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제주교도소는 6월 14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호성 소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의 꿈과 안전을 지키는 캠페인에 제주교도소가 동참해 뜻깊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교정본부장 정책 현장 방문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6월 16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단계별 대응, 인권 보호 실태 및 전문 직업훈련 교육과정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직원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남교도소 / 교도 박인휘

의료 자원봉사 업무협약식 개최
해남교도소는 6월 9일 해남김연함의원과 의료 자원봉사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조관성 소장은 "업무협약에 응해 주신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해남교도소 역시 수용자를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정읍교도소는 6월 21~22일 이틀간, 직원들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뇌파 검사, 피지질 케어, 명상 가능한 VR힐링부스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됐다.

소식이 오다
● 모범 공무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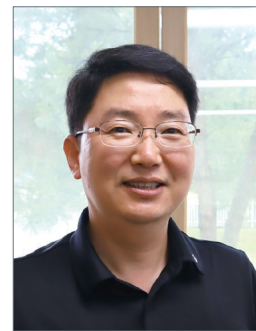
의정부교도소 교위 장해덕

장해덕 교위는 21여 년간 투철한 국가관과 교도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보안과 수용동 업무를 담당하는 장해덕 교위는 원칙에 입각한 근무로 수용 질서 확립 및 교정교화에 기여하는 한편, 수용자가 심적 안정을 찾고 수용 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고충 해소 등 수용자 관리에 매진 중이다. 특히, 의정부교도소 봉사 동아리 단체 회원으로서 매월 성금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등 교정공무원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김천소년교도소 교사 서문교

서문교 교사는 보안과 출정·외부병원 담당자로서 소년 수용자 김○○의 자살 기도를 저지해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해당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와 융화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입실을 거부해 영상계호 독거 수용 거실에 수용 중이었다. 서문교 교사는 지난 5월 9일 새벽 4시경 김○○이 자살 기도 중인 것을 발견해 즉시 저지했다. 수용자의 목 부위에 찰과상 등 액흔이 없는 것과 활력 징후 등에 이상이 없는 것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료과로 이동해 진료를 실시했다. 이처럼 서문교 교사는 탁월한 응급조치로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천안개방교도소 교감 정영희

정영희 교감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자 선제적 조치를 총청남도청에 건의해 천안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로부터 신속항원검사 진단 키트를 지원받아 475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시설 내 코로나19 검사 체계를 신속히 구축했다. 또한 인사주무 담당자로서 보직 관리 기준 마련 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공명한 인사 운영에 정성을 기했다. 특히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자 7건의 채용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해 업무 공백 방지에 기여했다.



제주교도소 교사 이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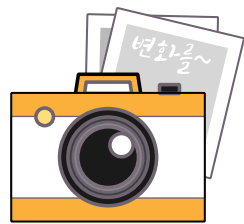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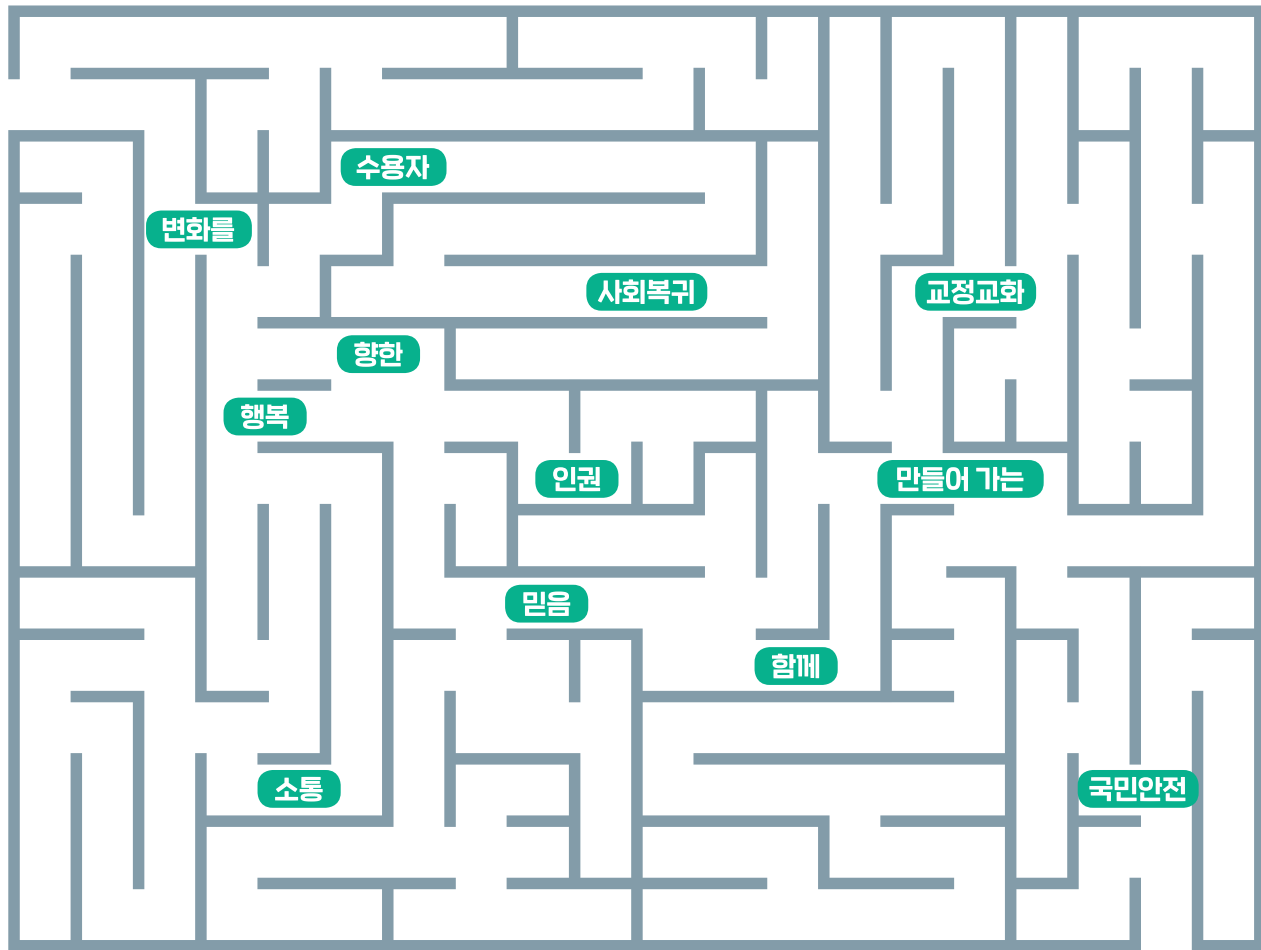
이철수 교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신입 수용자 격리 수용동을 담당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수용동 근무 시 방역 물품인 AP가운, KF94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신입 수용자 수용동의 방역을 철저히 관리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독자 퀴즈 및 이벤트

미로 탈출 넘버원! 숨겨진 메시지 찾기

지도를 보고 미로에서 탈출해 보세요. 올바른 길을 따라 가면 교정본부가 <교정>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지, 미로 탈출을 통해 발견해 보세요! 정답을 보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정답 보내는 곳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 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태풍
호우

이렇게 행동하세요



하천 급류
호우·태풍 등으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차량 침수
조금이라도 침수된 지하차도와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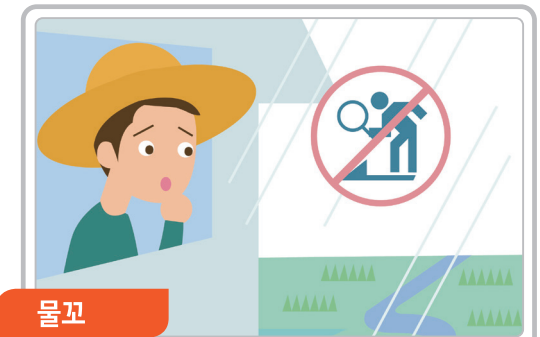
강풍에 의한 낙하물
유리창 및 건물 간판 근처는 강풍에 의한 낙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가급적 공터나 건물 안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의 야외활동(등산, 캠핑 등)은 자제하고, 대피 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세월교·교량 횡단
세월교나 소규모 교량이 물에 잠긴 경우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물꼬
호우·태풍 특보가 발효된 경우 물꼬를 보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BEST 교도관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본격 **자신감 찾기 프로젝트**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힘내라 교정공무원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교도소 24시)의

'우리는 베스트 교도관' 에서 영상을 확인 후 **좋아요, 구독, 공유** 꼭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개인재능, 기량과 취미 등을 맘껏 뽐내며
스트레스해소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

- 신체적 능력, 독특한 취미 등
-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신청도 가능
- 제보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능, 취미를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 메일: kimjudo@korea.kr
- 카카오톡: '교정마음나래' 친구추가 후 신청
-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02-2110-3901)



법무부 교정본부

